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海軍軍縮의新方向 比率主義의轉換

一

今年內에 開會될것이 條約上으로 豫定되고잇는 海軍軍縮本會議가 언제 開催될는지 漠然한 狀態에잇는 現在에잇서 去二十二日 英海相이 下院에서 比率主義撤廢를 言明하엿다는 消息은 海軍軍縮問題의 新方向을 指示하는 重要한 事實로 볼수잇다。昨年末 日英米三國 海軍豫備會商이 結果업시 停會될때에 豫備的折衝 또는 本會議開催의 『이니시어티브』를 英國政府에 賦與한 點으로 볼때에 一方에 傳하는 英政府의 海軍縮本會議 今年內 召集說과 아울러 엇더튼 海軍 軍縮問題에 對하야 英國政府가 엇더한 新打開策을 講究하고 잇다는 點을 首肯할 理由가 잇다。海軍豫備會商에잇서 日本代表의 平等主義에 依한 各艦種保有量共通最高限設定論에 對하야 米代表가 執拗하게 華府條約의 基礎인 差等比率主義를 固持하고 英國이 左瞻右顧의 曖昧한 態度를 反復하야 아모런 所得이 업시 갈려섯든 記憶을 聯想하면 英海相의 言明은 日本에 對한 이른바 名目上 平等賦與를 基礎로한 獨特한 新海軍制限方式을 暗示하는것이라 할것이다。

二

英國政府가 海軍軍縮問題에 對하야 現在 構想하고잇는 制限方式은 그 具體的內容이 엇더한것인지 알수업스나 英國海軍의 私設代辯者格인 데일리텔레그래프 海軍記者 헥타·바이워터氏가 屢屢히 放送하는바 主張에 依하면 이른바 『各國海軍力 保有量의 自主的宣言案』을中心으로 하야 一定한 新制限條約을 締結할것을 意圖하는 모양이다 各國海軍力保有量의 自主的宣言案이란 곳 一定한 期間內의 建艦案을 各國이 相互提示하야 各國家가 個別的으로 그制限量을 協定하는 形式의것으로 이것은 各國間의 相互理解가 深化되고 互讓的平和關係가 持續되는것을 前提로하야 成立될 性質의것은 말할것도 업는것이다。몬저英海相이 比率主義撤廢의 必要를 『一部諸國政府는 劣勢海軍力을 受諾하는것으로서 國家的威信을 傷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잇기때문이라』고 指摘한것은 日本과 獨逸을 例證한것이라고 볼수잇는데 獨逸이 입으로 軍備平等을 主張하면서 海軍問題에 잇서서는 對英三割五分 保有量을 自進하야 取한結果 海軍優位國으로서의 英國의 威嚴도 서고 獨逸도 베르사이유條約의 一方的廢棄를 旣定事實로 認定바든 利益을 어더 互助的關係가 成立되는데 自信을 어든나머지에 英國은 日本에 對하야도 名目上 패리티를 賦與함으로써、日本의 均勢要求를 充足식히면서 實質上으로는 差等主義의 엄연한 新條約을 締結할 心算이 아닌가고 보인다 이것은 倫敦豫備會商時의 英國代表의 米代表追從的態度에서 볼때에 英米關係의 特別한 變異가 업는 今日 豫想할수잇는 일이다

三

實質上 平等主義에 依한 新海軍制限條約이 아니면 그形式의 如何에 不拘하고 排合할 態度를 取하여온 日本海軍當局에 對하야 英海相의 比率主義撤廢言明은 日本의 原則是認으로도 볼수도 잇다。그러나 그것은 새로 締結할 制限方式의 具體的內容이 表示되기까지는 무어이라고 斷言할수는 업다。오즉 英國이 正面으로 對立된 日米兩國의 主張을 折衝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動하고 잇다는것만이 오늘에 잇서 推測할수잇는 일이라고 할것이다。

米國도英國에追從 比率主義를斷念 安全感의限度를原則으로한 新方式四大原則確立

【華盛頓二十四日發聯合】英國政府의 比率主義放棄聲明에 뒤니여 루즈벨트 大統領은 스탠드레 作戰部長을 招致하고 海軍問題에 對處할 最高方策을 協議한 結果 마츰내 米國은 從來의 海軍制限方式의 金科玉條로 米國政府가 固執하여온 比率主義를 斷念하고 安全感의 限度를 指導原則으로한 新方式達成에 邁進하기로 決定한것이라고 解釋된다 헤랄드트리뷴紙의 華盛頓特電은 米國政府는 海軍問題에 關한 四大原則을 確立하고 國務 海軍兩省을 通하야 右政策을 遂行하고 잇는것이라고 하는데 四大原則되는바는 次의 內容으로 如左하다

一、米國政府當局은 華盛頓 倫敦兩海軍條約의 延長을 要望하여왓스나 이미 日本政府는 華盛頓條約 廢棄를 通告하엿고 豫備會商에 잇서서도 比率主義의 廢棄를 堅持하야 讓步치안흠으로 日本政府의 支持를 어더 兩海軍條約의 延長을實現할수는 업다 米國政府는 이事實을 容認한다

二、比率主義에 代位할 海軍制限方式을 達成할것은 今後의 折衝에 맛기지안흐면 안되다 그러나 方式에關한 發議提唱은 英國政府에 一任한 그리고海軍制限問題 今後의折衝乃至 海軍縮少本會議의 情勢에 關하여도 모도英國政府의發議에 막김

三、但海軍制限新方式을 基調로 米國政府 安全感의 均等原則을 提唱할 安全感의 均等은 반드시 各國政府保有兵力量의 均等을 意味하는것이 안이라는것을 特히 聲明할 必要가잇슴

四、現行華盛頓條約의 限度以上 各國政府의 保有海軍力을 全般的으로 增加하는데는 絶對反對함

安全感主義原則 米政府當局見解表明

【華盛頓二十三日發聯合】米國政府當局은 海軍制限方式으로 安全感의 均等을 提唱하야 二十三日 左의見解를 說明하엿다

英國政府의 比率主義廢棄聲明은 特別히 새로운것은 아니다 그것은 單純히 現存事實을 明確히한데 不外하는것이다 各國政府는 아마 安全感均等의 原則受諾에는 異議업슬것이다 英國政府今回의 聲明은 要컨대 宣言方式으로써 各國國防의 安全感을 確立하려는것일것이다

伊에紛爭問題로 英大使佛首相會見

【巴里二十三日發聯合】英國大使는 二十三日 午前 라발首相과 會見하고 伊에兩國의 紛爭處理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하엿다 또 알놀事務總長과도 協議한結果 特別理事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 開催의 日時는 리트비노프議長이 適宜決定할터인바 當日 리트비노프議長은 二十七日까지에 巴里에 到着하야 라발首相과 協議하고 歸府에 出席할터이다

에國政府에서 外人歸還勸告

【아디스아베바二十三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伊에兩國에 戰端이 開始될때에 地方市民이 排外行動을 할것을 憂慮하야 地方으로부터 撤歸하라고 勸告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三日 各機關을 通하야 아디스아베바 或은 그近郊의 警察의 保護가 及하는 地域에 撤歸하도록 通牒하엿다

普通文官試驗 八月二日에開始

今年度 普通文官試驗은 二十日 接受를 끗마엇는데 受驗者總數는 千八十六名으로 其中 七割은 官廳在職者이다 試驗은 京城中學校에서 八月二日에 第一次 試驗 七、八兩日에 學科試驗 十二日에 口述試驗을 行할터인데 試驗委員은 二十四日總督府에서 協議會를 行하엿다

十一月十五日로써 比島聯邦創立! 머피比島總督의發表

【電通마닐라二十四日發】머피比島總督은 本日比島聯邦은 來十一月十五日로써 創立되기로 確定한旨를 發表하엿다

루大統領糾彈 共和黨議員某氏의演說

【電通華盛頓二十三日發】뉴-딜政策에 對한 違憲判決의 續出로 루즈벨트大統領을 非難하는 소래는 共和黨議員間에 漸次 高調되고 잇는데 紐育州選出 共和黨下院議員 하밀톤피쉬氏는 今日 下院에서 左와如히 루즈벨트大統領의 違憲行爲와 大統領으로하여금 이罪를犯케한 民主黨領袖에 對한 糾彈演說을 行하야 多大한 注目을끄럿다 下院議員中에는 루즈벨트大統領 彈劾決議案提出을 準備하계 考慮하고잇는이가 數名잇다 萬若 彈劾決議案이 提出되면 人民은 大統領이 憲法에 違反되는 社會的 또는 經濟的新秩序를 確立하려는것을 容許하고 잇슴으로 반드시 이를 支持할것이다 明年大統領選擧는 立憲政治의 復活이 主要題目이 될것이다

一事一言

큰비 지난 이튼날

長白山人

三南에는 旱災를 보면서 京中地方은 水災를 보핫다。우리는 天道의 不公平을 원망하기전에 自身의 愆過를 反省하지 아니할수업다。山은 나자지고、河川바닥은 노파지는것이 自然의 運命이어니와 山에 나무를 심거 一邊 土砂의 流出을 制限하고 一邊雨水가 一時에 빠저나라남을 防禦하는것이 이 山低川高의 自然傾向에 抵抗하야 水旱을 막는 要務인것은 決코 近代의 發見이아니니 朝鮮에서도 옛날에는 治山治水가 行政의 一重要事가 되어잇섯다。그리하던것이 近世 政治의 腐敗와 따라서 생긴 民心의 不安、貪婪、無道로 百年計의 植木보다도 一日利의 伐木을 세운 結果로 朝鮮의 山은 童濯하고 江河는 노파지고 헤버러저서 거진 해마다 水旱災를 當하게 되엇다。오늘와서는 山의 綠化라는것은 저마다 말하는바가 되어지마는 아직도 우리는 愛山愛林의 情이 얼마 간절하지 아니 한가。一草一木이 제 國土의 生命인줄을 自覺할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先人의 山林에 對한 反逆의 罪를 씻고 水旱의 禍를 免하게 될것이다。마일 우리가 그냥 前非를 痛悔함이 업시 不植濫伐의 惡習을 繼續한다면 우리 國土는 黃河流域과 가튼 沙漠으로 化할 날이 決코 百年 二百年後가 아니라 十年 二十年內일것이다。

그러나 旱水災의 豫防은 반드시 治山治水에만 잇는것이 아니라 排水、灌漑의 施設과 宅地와 村落基地의 選擇이며 또는 建築方式과 避難設備도 重要한일이다。河川流域을 堤防하는 設備와 排水口設備不充分과 우리 家屋이 基地選擇과 基礎工事의 허술함과 大災를 豫想한 豫防考慮의 缺乏함과 堤防의 不合理함이 얼마나 水災의 害를 深刻하게하는가。

旱水災의 豫防은 傳染病豫防과 마찬가지로 그 地域住民의 文明과 生存競爭力이 不足함을 보임이어서 羞恥다。水災다면 반다시 黃河나 揚子江流域을 聯想케하는것은 地理的事情에 關係도잇다 하지마는 그地域住民이 아직도 어떠케 低級이라는標가 아닐까。

큰비 지난 이튼날、우리는 스스로 三省함이 업지못할것이다。

蘇고르키型飛機 十六臺을建造

【新京二十四日發聯合】莫斯科電에 依하면 蘇聯政府는 過般墜落한 고르키號의 再建運動과 한께 全國新聞紙로 하여금 國內及 海外의 讀者로부터 航空國策確立基金募集을 進陟하고잇든바 六月末까지에 蘇聯人民委員會로 모힌 金額은 六百八千百十一萬三千二百六十七留로 海外在住者로부터 一萬四千二百四十二留라는 莫大한 獻金이 잇섯다 當局은 더욱 督勵하야 獻金募集을 進行하는 同時에 于先 右獻金으로써 고르키號와 同樣의 性能을가진 大飛行機 十六臺를 建造하기로 決定하고 이에 設計를 終了하엿는데 名稱은 國民大衆의 希望도잇서서 蘇聯政府의 功勞者인 레닌 스탈린 고르키 카리닌 모로토프 키로프等十六名의 名稱을命名하기로決定하엿다

陸海內農의四省과 大藏當局正面對立 軍部豫算만十四億、內農도巨額으로 藏相方針과全然背反

【東京電話聯合】高橋藏相은 來年度豫算編成에 關한 大體의 腹案을어더 事務當局에 對하야 大體의 編成方針을 指示하엿슴으로 二十六日 公債에 關한 方針을 宣明하고 葉山御用邸에 伺候 天機奉伺를 行하고 同日부터 靜養키로되엿슴으로 事務當局은 各省에 對하야 閣議決定에 基하야 七月三十一日까지 豫算案의 提出을 要求하고 豫算編成을 急히하기로되엿는데 來年度豫算에 關하야 高橋藏相은 健全財政方針을 堅持하고 赤字公債의 漸減을 圖하기로 決意하고 그主旨에 基하야 豫算査定을 行할터이다 그러나 一九三五、六年의 非常時局에 善處함에는 相當한 國防費를 容認치안흐면 안될 實情에 處하여 잇고 海軍은 七億餘의 豫算案을 作成하엿고 陸軍은 六億餘의豫算을 提出할模樣임으로 軍部豫算만으로十四億에 達할形勢를 보히고 잇다 그리고內務、農林兩省은 地方振興及 地方農村更生의 立場及 지난議會에잇서서의 言質等으로 相當히 多額의 豫算을計上할必要에 迫到되여 內務省과는 地方財政調整交附金의實現을 期하리라고 豫想되는 現狀이다 各省의 方針이 全然背反되는 高橋藏相의 方針으로 大藏省으로서는 旣定方針에 依하야 各省이 決定한 豫算에 大斧鉞을 加하려하고 잇스나 陸海及 內務、農林各省은 强硬히 原案의 實現을 主張하고 잇슴으로 豫算編成에關하야 大藏當局과 前記四省과의 間에 緊張된 場面을展開하리라고 豫想된다

內相、國策으로서 地方交附金案을確信

【東京電話聯合】內務省의 明年度新規事業으로 計上된 地方財政調整交附金制度는 高橋藏相의 反對를 맛나 그 成果가 注目되드니 後藤內相은 그 取扱에 關한 內務省의 方針에 對하야 二十四日 左와 如히 말하엿다

地方財政調整交附金案은 內務省에서 多年研究한 結果 相當한 確信을가진 理想案이다 이것을 明年度豫算에 內務省이 計上하기는 當然한일이라고 思한다 더욱 內閣審議會와의 關係는 只今까지 不卽不離의 立場에잇서 併行的으로 審議될性質의것인바 實로 地方財政之을 打開하기 爲하야 大局的見地에서 各方面에 耳하야 檢討審究하여가지고 그 一部門으로 交附金案의審議에 入하기로되엿슴으로 內務省의 交附金案은 此審議에 對하야 審議한다음 案의 內容에 對하야 取捨選擇을 決하야 內閣審議會가 政府의 國策으로 交附金의 政府案을 作成하기로되것은 藏相이 說解하고 잇든 余는 思하다 따라서 余는 內閣審議會가 來議會에 提出할 交附金案을 作成할수잇는것이다고 確信하고 잇는바이다

◇高橋藏相談

【東京電話聯合】內務省의 來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또다시 地方財政調整交附金을 提出한다는데 關해서는 아직 아모 말도 못들엇스나 그것이 事實이면 딱한일이다 審議會에서 具體策을 考究中인데 그結果는 成案되지 아니하엿는데 內務省이 獨自의 立場에서 交附金案을 本豫算에 要求한다는것은 結局又復 豫算分捕의 弊害를 助長하는것이다

國體明徵에關한 政府의聲明準備 軍部와의見解如何注目

【東京電話聯合】國體明徵에 關하야 岡田首相은 林陸相의 進言에 基하야 聲明을 發表하기로 되엿는데 그內容如何에 依하여는 다시 政治的問題를 惹起할憂慮가 잇스므로 白根書記官長으로하야금 愼重 案文을 作成케하고잇다 그리고 陸軍省에서는 이問題에 關하여는 部內의 要望도 잇스므로 軍의 意向을 明白히하야 國民으로하여금 誤解를 生치안흘 程度의聲明을 發表할必要가 잇다하야 政府와는 別個로 聲明案의 作成을 急히하고 잇는데 二十四日 白根書記官長은 橋本陸軍次官에게 電話로 問議한바 陸軍省의 案文도 漸次進捗되고 잇스며 近日 脫稿케 되엿슴으로 來二十六日 北海道로부터 歸東할 小原法相及 二十七日 大阪으로 부터 歸東할 林陸相의 歸東을 기다려 政府와 陸軍省에서 作成中인 案文을 基礎로 聲明書를 決定하야 來月 上旬 中外에 宣明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政府에서 作成하고 잇는 案文內容은 國體明徵을 主로 機關說問題에 關하여는 事務的으로 解決하려하는데 對하야 軍部는 機關說의 根絶을 主張하고 잇슴으로 聲明書決定에 對하여는 見解의 相違를 如何히 調和할는지가 興味잇는것이다

蘇聯邦又復 極東軍充實整備

【齊齊哈爾二十四日發聯合】蘇聯邦에서는 一時極東軍의 一部를 西歐洲國境에 移動하엿스나 最近黑龍江을 中心으로한 日滿蘇紛爭事件頻發에 鑑하야 多數의軍隊를再次 極東方面에移動한모양으로 最近 포그라니치나야驛을 通過한 列車는 거의 軍用列車만으로 그大部分은 步兵、砲兵外에 水兵을 多數移動하얏다 이리하야 蘇聯邦 極東軍의 充實 整備는 今後 더욱더욱 玆厲化할것으로 뵈인다

夕刊後市況 廿四日

◆大阪 短期 當配◆
大新 八三〇〇 (一〇低)
鐘新 二一六〇〇 (不變)
日産 六九〇〇 (二〇低)
東新 一三六八〇 (二〇低)

◆橫濱 生絲 後引◆
當限六七八〇〇 先限六一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三七〇 先限 五五一〇

汪氏會見코저 黃紹雄氏靑島行

【電通上海二十三日發】黃紹雄氏는 二十三日午前六時三十分 上海發飛行機로 靑島에 向하엿다 黃氏는 同地에서 靜養中인 汪精衛氏와 會見하고 成都에서 蔣介石氏와 會見한 顚末과 蔣介石氏의 對日方針及 上海要人會議의 經過를 報告하고 今後의 對日折衝에 對하야 協議할터이다

人事·集會

▲洪淳赫氏(咸興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敎員) 日前入京中、本社落成人事次二十四日來社

▲岩男省二(遞信局監督課長)新任人事次來社

一高熱下의伊太利兵의受難一

에디오피아를 武力으로 膺懲코저 東阿에出征한 十餘萬의大兵이 伊領쏘마리랜드에 上陸하자 먼저 鬪爭할 對象은 에디오피아軍이 아니오 高熱이다。熱帶地方인 이곳에온 伊太利軍은 더위와 飮料水의不良으로 莫大한 困難을겪는中이라는바 寫眞은 文明人도 大自然의威壓에는 엇절수업는일인지라 할수업시 저고리를 一齊히 버서던지고 웃통을 벗거벗고 行進하는 伊太利兵의 受難相

通商條約廢棄는 手續上으로遺憾 埃及政府의反省促進

【東京電話聯合】埃及政府는 去十八日 日埃通商條約 廢棄通告를 하엿는데 天城總領事를 通하야 通達하여온데 對하야 外務省은 近日中에 天城總領事로하여금 그 回答을 手交케하기로되엿다 右回答은 大體 左의諸點을 强調하야 埃及政府의 反省을促할것이라고 觀測된다

一、埃及政府는 右覺書에 잇서 片貿易을 指摘하엿스나 埃及側의 數字는 日本의統計와 甚히 相違된다 그리고 最近日本이 埃及으로부터 輸入하는 額도 顯著히 增加하야 輸入超過를 呈하고잇다

一、埃及政府는 日本의 對埃輸出이 同國 國內産業을 脅威한다고하나 萬若 그러하다하면 當業者에도 日本이印度와 行한 日印交涉의例를 보드라도 이것을 商議에부처 解決할方法이 잇섯슬것이다 그런데 突然 通商條約 廢棄를 聲明한것은 手續上甚히遺憾이다

一、日本政府는 埃及에 對하여는 從來는 勿論 今後에라도 友好親善關係의 持續을 希望하는것으로 來年度 豫算에는 카이로 에日本公使館 設立에要할 經費를 計上하고 着着準備中이다 그리고 貿易關係에 잇서서도 極力 埃及側의 意向을 尊重하야 關係의 調節을 圖하기를 不吝하는바이다 따라 埃及政府에서도 同條約廢棄의 善後措置와 新條約締結에 對하여도 어데까지 友好關係를 尊重하야 誠意를披瀝하야 善處하기를 바란다

改造社發行 (新刊·重版書) 東京芝新橋七 振替東京八四三番

高石敏男·木村象雷著 水泳日本 價二·〇〇 送料·一二
深田久彌著 わが山山 價二·三〇 送料·一四
中垣虎兒郞著 北極 價一·八〇 送料·一四
吉川英治著 あるぷす大將 價一·八〇 送料·一二
林芙美子著 旅だより 價一·〇〇 送料·一〇
田中貢太郞著 日本怪談全集 全四卷 各一·二〇 送料·一〇
三遊亭圓朝著 圓朝怪談全集 全二卷 各一·三〇 送料·一二
菊池寬著 貞操問答 價一·五〇 送料·一二
子母澤寬著 盜ツ人旦那 價一·八〇 送料·一四
大佛次郞著 安政の大獄 價一·八〇 送料·一二
武田麟太郞著 銀座八丁 價一·八〇 送料·一二

橫光利一著 紋章 價二·〇〇 送料·一二
吉澤義則校註 平家物語 價七·五〇 送料·三二
廣津和郞著 風雨強かるべし 價二·〇〇 送料·一二
直木三十五、三上於菟吉共著 相馬大作 價一·五〇 送料·一〇
高田保著 有閑雜記帖 價一·三〇 送料·一〇
白川次郞譯 女一人大地を行く 價一·六〇 送料·一〇
十一谷義三郞譯 戀愛淸談 價一·八〇 送料·一二
黑川英太郞著 動物と暮して四十年 價一·七〇 送料·一四
小笠原長生著 聖將東鄕平八郞傳 價一·〇〇 送料·一〇
小笠原長生著 晩年の東鄕元帥 價一·五〇 送料·一二
川端康成著 川端康成集 (第一卷) 價二·三〇 送料·一二
プリボイ作、上脇進譯 日本海海戰 價一·八〇 送料·〇六
プリボイ作、上脇進譯 日本海々戰 (後篇) 價一·八〇 送料·〇六
小松淸譯 征服者 價一·五〇 送料·〇八

石川啄木の硏究 價一·八〇 送料·一〇
窪田空穗篇 價二·二〇 送料·一二
太田水穗篇 價二·四〇 送料·一二
吉田絃二郞著 白き雲なつかし 價一·五〇 送料·一〇
吉田絃二郞著 小草をさゝぐ 價·九〇 送料·〇六
山本實彦著 滿鮮 價一·五〇 送料·一四
山本實彦著 小閑集 價一·八〇 送料·一二
林芙美子著 泣蟲小僧 價二·〇〇 送料·一〇
尾山篤二郞著 西行法師評傳 價二·〇〇 送料·一二
改造社版 萬葉集の綜合硏究 價二·八〇 送料·一二
川田順著 歌集旅雁 價一·五〇 送料·一〇

三木淸監輯 シェストフ選集 (第一卷 第二卷) 價各二·五〇 送料各·一二
ゼルミナール 價二·八〇 送料·一四
木村毅譯 バイロン 價二·三〇 送料·一四
佛蘭西革命前後 價三·五〇 送料·一八
外村史郞譯 マルクス·エンゲルス藝術論 價一·三〇 送料·一〇
猪俣津南雄著 窮乏の農村 價一·三〇 送料·一〇
井上日召著 日本精神に生よ 價一·〇〇 送料·〇八
蠶絲統制論 價一·五〇 送料·一〇
慶應義塾各國經濟硏究會編 アメリカ經濟及經濟政策 價二·七〇 送料·二〇
猪俣津南雄著 軍備公債增稅 價一·三〇 送料·一〇
向坂逸郞著 知識階級論 價二·〇〇 送料·一二
佐々弘雄著 續人物春秋 價一·五〇 送料·一〇
杉山平助著 人物論 價一·八〇 送料·一二
佛誕二千五百年記念學會編 佛敎講話 價一·三〇 送料·一〇
賀川豐彦·安藤政吉著 日本道德統計要覽 價四·五〇 送料·一二
澁澤三郞·直井武夫編 最新露和辭典 特價四·〇〇 送料·一二

日本農業硏究會編 第一輯 農業恐慌の全面的展望 價一·二〇 送料·一〇
日本農業硏究會編 第二輯 植民地農業問題特輯 價一·二〇 送料·〇八
日本農業硏究會編 第三輯 米穀問題特輯 價一·五〇 送料·一〇
日本農業硏究會編 第四輯 蠶絲業問題特輯 價一·五〇 送料·〇八
日本農業硏究會編 第五輯 農業政策批判 價一·七〇 送料·〇八
日本農業硏究會編 第六輯 農產物販賣統制問題 價一·七〇 送料·一〇
東京商工會議所編 商工年鑑 昭和十年版 價一〇·〇〇 送料·四五
荒木光太郞著 現代貨幣問題 價三·〇〇 送料·一二
鈴木茂三郞著 日本財閥論 價一·八〇 送料·一四
滿鐵經濟調査會編 滿洲經濟年報 (一九三四年版) 價一·八〇 送料·一四
大江新吉譯 世界兵器工場物語 價一·五〇 送料·一〇
濱田恒一著 貿易政策論 價二·三〇 送料·一四

水亂騷動一過後에 沿江住民復舊에奔忙

昨日晴天으로漢江水位激減

麻浦、纛島警戒도解除

일시위험하엿든 한강의물은 이하로동안 날이들면서 물은 시각마다빠저 이십사일아츰 시에이르러서는 한강의수위는 인도교아래가 륙미돌 오십이고 욱천(旭川)이 칠미돌칠십오에서 위급에서안돈으로 황겁에서 정비(整備)로 주민들도 차츰 복구와 (再建)에 주력하게 되엿다 이에 경성부청의 구호반을 위시하야 각공사 구호대는 중대한 활동을 마치고 다도라갓스며 구호의 남은 백미는 방면위원에게 맛기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얏고 경찰당국의 방수대도 다각각 도라갓다 징용밋까지 육려오든 도도한 탁류도 이제는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얏고 끔을 저어 가며 담사이를 아르삭이든 거루그림자도 한때의 환영이 되얏스며 호령치는 비줄기를 마저가며 아비와 자식을 부르든규환성도 한토막의 삽화가되고 이제연강일대는 수채를 돌는 팡이소리와 문짝을 마추는 함머ㅣ장단이 개흙에 아주 새로운 연강을 울리고잇서 씩씩한 부흥의 발랄한 상징을 보이고잇다 그러고 왕십리에피난중이든 뚝섬피난민들은 각기자기집을차저가고 마포방면피난민도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아직피난장소에서 감수되기를 기대리는중이나 이십오일중에는 대개 집에들모양이다

農作物被害莫大

鐵道는二十四日復舊

【沙里院支局特電】황해도봉산군 서종면(鳳山郡西鍾面)일대와 재령군삼강면(載寧郡三江面)일부는 이십삼일아침이래의 호우로 인하야 가옥침수가 수백호에농작물의침수가 일천오백여정보에달하며 그중에도륙도(陸稻)가 삼백정보는 전멸상태에빠젓다 그리고수답도 이틀이내에 감수되지 아니하면 피해가 막대할형편이요 황해선재령사리원간은 하로동안 불통이되엿다가 이십사일에겨우개통되엿다 고 안악(安岳)오류(梧柳)로 통하는 자동차선로도 불통이 되엿든이라한다

僧伽寺禪院 慰問金醵出

本社로보내

창의문밧 승가사선원(僧伽寺禪院)에서는 금번한강연안 수해리재민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령세한 주머니를 털어본사로 보내면서 리재민 구제비에 보태여써달라고 부탁을하여다

漢江水害民救護金 三角山僧伽寺禪院

處順俊 三十錢 黃瑞雲 十錢 崔尊卞 三十錢 洪華峰 三十錢 金瑞雲 二十錢 無名氏 十錢 金光輪 二十錢 李光石 三十錢 洪明根 三十錢 申貞子 十五錢 文價旭 五錢 李敬波 一圓 鄭湧殷 康壽福 三十錢

麻浦東幕一帶 今日中完全退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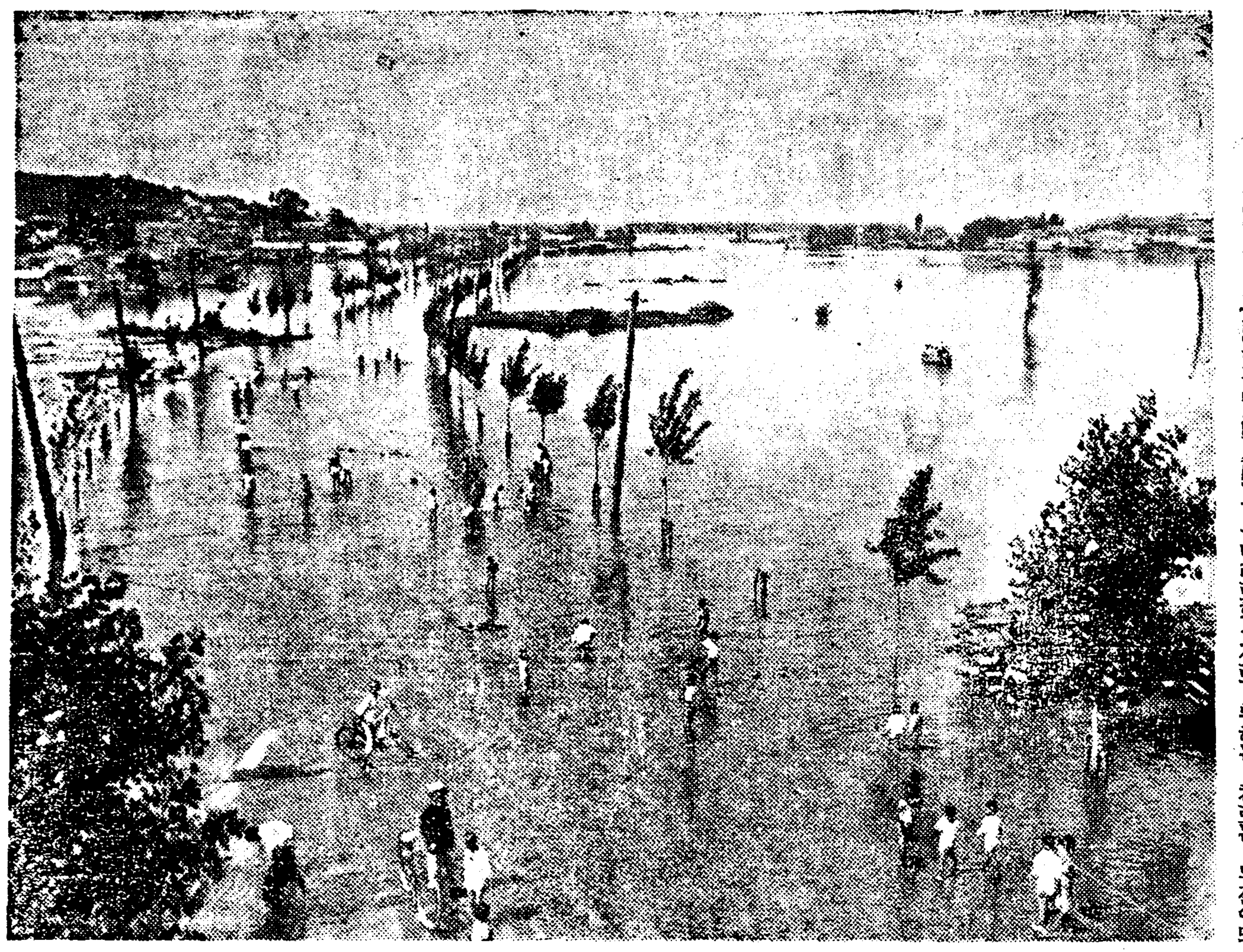
時刻마다물이빠진다

마포、동막(麻浦、東幕)일대의 침수상황에 대하야는 이십사일밤이래 요행비가 그친관계로 이십사일아츰부터는 차차 감수되기시작하여 현저하게 감수되엿슴으 공덕리(孔德里)와 염리(鹽里)두동리를 격한 철도뚝을 경계로 물은겨우 독바으로 흘러나갓슬뿐 기라 토정리(土亭里)쪽으로안물뇌과 마포방면으로『바윗골물』과『큰우물』부근들은 아직도 이러타할만한 감수의형세를 보이지안코 의연히침수상태에잇다 그러나 지금과가티 날이계속하여 개인다면 이십오일정오까지 일반침수가옥만은 완전히수마의 구렁에서버서나게되리라한다

信川一圓大雨로 五百餘戶浸水

交通通信도全部杜絶

【信川支局電話】황해도신천일대는 이십삼일부터 나리는 호우로인하야 읍내의 침수가옥이오백여호에 달하고 황해도의 보고라고하는 신천군북부면(北部面)금산(金山)송하(松下)각면)로월면(蘆月面)은 물나라로화 하여다 이로인하야 신천에서재녕(載寧)지로 통하는 천로는 두절이되여다 아직 통신과 교통의 두절로 군내의 피해는 일일히 알수업스나 인축의피해도 상당할모양이다 비는이십사일 아츰에일단개엿스나 천후는 아직도험악하야 안심을불허한다



刻刻減水 麻浦方面에서……작일오후촬영

西氷庫一帶 急激히減水

【漢芝面】시외 수철리(水鐵里) 한강리(漢江里)、신천리(新川里) 서빙고리(西氷庫里)동빙고리(東氷庫里)동은 밤즘 급격하게감수가 되어가고 잇는 중으로금일중에 거진 원상이 복구될형편이라한다

江原道內被害

금번호우로 강원도는춘천(春川)지방을 중심으로 우량이백이십수되엿슴으로 교통기관은 상당한 피해를바덧다는데 이십사일아츰까지에 판명된 도내의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한다

▲死者一名 ▲負傷者一名 ▲倒潰一戶 ▲同半潰二戶 ▲床上浸水一〇戶

工場、劇場等은 住宅地域엔不許

商業建物과住宅에도制限케될

建築取締令九月實施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공포에따러 조선의 도시는 조직적으로정비되게될터인데 동계획령의중심인 제이장 건축물 취체규정(建築物取締規定)은 경무국에서기안하야 심의실의 심의도 완료되엿슴으로 오는 구월일일부령으로 공포와동시에 실시할예정이다 그때에는조선의 도시건물은 위생 방화 체재등이 몰라볼만큼 근대화하게 될터인데 그취체규정 내용가운데 일본내지의 그것과 다른점은

一、위생사상을 철저하게 하기위하야 주택에는 반드시 변소의 설비를 식힐규정

二、조선에 고유한 온돌의 구조설비에 조건을 부친것

三、창의 쇠창살、철망등에는피난설비를 하게한것

四、지진이업는것 기후관계 민중의 경제력등을 고려하야건축물의 구조강도를 원측에근치고 상세는 규정치 아니한것

五、공사수속규정을 간단히 하야 통일적으로 포함식혀 일반민중의 불편을 업시한것

등이요 또 제한규정의 중요한것은

一、건축물의 노피는 주택구역은 이십척미돌、기타는 삼십일미돌을 넘지못할것

二、건축물의 면적은 대지면적에대하야 주택구역은 십분지륙、상업구역은 십분지팔을넘지못할것

三、거주의 안녕을 해할염려가잇는 위험물 제조공장과 원동기 사십마력이상의공장、영화관、연극장、대좌업등은 주택에 치입을 불허할것

四、원동력 오백마력이상의 공장 총포화약취체령에 의한제조공장은 공업구역이외에 건축을 불허할것

등、이외에 풍치와미관지의 환경에 해롭게하는 건물은 역시허가아니할뿐아니라 기설의 건물에도 허가변경을 명령할수잇도록되어잇다 그밧게 방화、위생설비에 대한것도 세밀히 규정되엇고 다만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지정을 바든것은 적용이아니되나 기타의 건물로동취체규정에 위반할때는 이천원의벌금을물게된다

昨日塔洞公園에 疑問의少女誘拐

세시간이나끌려단이다돌아와

鍾路署에서도一時大騷動

이십사일 오후세시 백주에 대경성의 중앙탑골공원에서 놀든 소녀한명을 어떤자가 꾀여 데리고 어데로 도망한 사건이발각되야 그의집에서는 울든시내 각경찰서에서 그를 찻는라고일시대소동을 일으켯다 부내락원동(樂園洞)사십번지 성회당(成華堂)간판점주인 김귀린(金基麟)씨의 둘재딸 수하동(水下洞)공립보통학교이학년 생도종성(鍾城)이다 그의 언니동교사학년생도 종화(鍾華)(一)와 그의 동생과세명이 오래동안계속하여 내리는 비로집에 가처잇다가 개인바람에 탑골공원으로놀려가서그네를뛰고 놀고잇는즈음 검은양복 웃저고리에 하얀양복바지를입은 나히의 사십세가량된 남자하나가 나타나서 배가곱흐니 호떡을 한개사다달라고 돈을줌으로 전긔종성이가 사다준즉 그는호떡을 나누어서 종성이자매에게 주어먹인후 해수욕을 갈려인데 혼자가기 심심하니 가리가자고하며 종화에게는 돈오전을주어 먼저집으로 돌려보낸후 그는종성이를 꾀여데리고 수표교(水標橋)를 건너명치정(明治町)천주교당으로가서 때마츰 그곳에서 거행하는어떤사람의 결혼식장을 구경시킨후 삼청동(三淸洞)으로 가자고 달래다가 종성이가 실타고집으로 가겟다고한즉 그는종성이를데리고다시 탑골공원까지와슬때에어떤사람이 종성이를보고 너의집에서찻더라고한즉 그는어데로도망해버리고말어 이리하야종성은의문의남자에게 끌려단닌지세시간후 여섯시경에 무사히그의집으로돌아왓다 과연그남자는어떤사람이며 어떤목적으로 그려케 어린애를끌고 단녓는지 의문이되여소관경찰에서는 소아유괴사건이라고하여 방이들어서 전기어린아이와 그부형을 경찰에불러전후사정을 청취하고 의문의남자의행방을찻고잇는터이다

"誘拐"目的은?

수상하기짝이업는일 家庭에서注意하라

소관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유괴범인은 이소녀를 꾀여다가파려먹을 예정이엿든지 또는변태성욕자로 그의변태성을 만족히하려든것이지 범인의 행동은대단히 수상하다 더구나 꾀여가지고 돌아단이다가 데려다 주엇다는것도 이상스러운데 흥은악심을 내어 꾀여데리고가다가 뜻대로안되매 도로데려다 준것이아닌가도 생각되여 방금범인을 수색코저 노력중인데 꾀임바든아해가 보통학교아동이니만큼 자녀를가진부형들은 이점을특별히 경계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끌려갓든아이말

을 몹시 꾸지젓습니다 그놈이 웨 어린것을 끌고 단녓는지요 붓잡어서 톡톡히 버릇을 가르케야 하겟습니다 세상의 자녀를 가진부모네 들은 특별히 주의할일입니다 무사히 돌아온것만이 여간 다행한일이아닙니다

해수욕장(아마 풀인모양)구경을 식혀준다고 하기에 쪼처갓지요 그래더니 그사람은 나를 데리고 종현(鍾峴)천주교당에 가서 어떤 사람의 결혼식장을 보힌후 삼청동으로「가자고 항으로 나는 해도 저물고 집에가야겟다고 실타고 하니까 다시 나를 데리고 탑골공원까지 왓다가 어데로 가버렷서요 하며 그의 부모에게 꾸중을 듯고 혹혹 늑기며 종성이는 자못 따러간것이 후회나는듯이 사실을 말하엿다

아희부친의 말

너머나 놀래서 가슴이 다 압품니다 자식이 어리석어서 그러치요 딸년부지 아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경식혀 준다고 꾀인다고 해도 저만 똑똑하면 웨 조처가겟습니가 다시 이후에는 그런 버릇을 못하도록 두어들그

貨物自働車 뻐쓰와衝突

이십사일 오후 세시반경 시내관수동(觀水洞)경룡(京龍)뻐스운전수 권화진(權和眞)(二一)은 뻐스를몰고 한강통으로 질주하든중 십자로에서 경성련와공장자가용으로 김진일(金珍溢)(三〇)이 운전하고 리태원(梨泰院)으로가든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여약륙십원의 손해를 입엇슬뿐으로다행히승객에는 무사하엿섯다한다

夏期音樂講習會 八月一日로延期

재동경 조선음악가협회(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주최 본사학예부후원의 하긔 음악강습회는 기보한바와 가티 금일에 열기로 되엿든 것이나 강사멧분의 신병으로 인하야 부득이 팔월일일로 연긔하게되엿다。 따라서 신청기한도 칠월말일까지 연긔되고 신청자가 만흔 관계상 강사증원이 잇슬 모양이다

金庫와蓄音機실은 主人업는배가流下

금고엔 돈도 삼십여전이 잇서 麻浦에서 건저서警察이調査

이십삼일낫에 고양군연희면상암리(高陽郡延禧面上岩里) 김준경(李俊慶)등 삼십명은 강가에서 물을 경게하고 잇다가 한강에서 목선한척이 떠나려가는것을 건저 내엿는데 그배소유자는 경성부이촌동(二村洞) 삼백삼번지 소창무길(小倉武吉)이라고 쓰여잇스며 그배안에는 축음기한대와 『류렁크』한대와 금고두개가 실려잇섯는데 그금고안에는 현금삼십오전이 드러잇섯다 한다 이배는 누구가 어데서 타고 잇다가 떠나린것인지 알수업스며 그배에 탓든사람은 어떠케되엿는지 자못의심되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룡산경찰서로 통지하야 사실을 조사하는중이라한다

運動競技

文理大陸上팀 對抗朝鮮豫選

來四月三日에 열리는 文理科大學 陸上部 招聘戰에 出場할朝鮮代表 豫選會는 二十四日 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한바 戰績은 다음과 갓다

【百米】1韓昌錫(延) 一一秒三 2金仁植(延)一一秒五 3本鄕(京師)

【四百米】1金仁植(延)五二秒五 2三好(鐵)

【千五百米】1李正根(鐵)四分二〇秒六 2閔永星(延)四分三三秒五 3邊龍煥(總)

【五千米】1張寬淳(延)一四分二一秒 2孫允益(永登浦)

【百十米障碍】1安達(延)一六秒七 2邊龍煥

【走高跳】1上原(鐵)一米六五

【走幅跳】1熊谷(京師)六米四〇 2劉昌錫(延)六米三六

【投槍】1富田(鐵道)五一米二八 2洪永基(徽文)四六米四四

【投砲丸】1李俊甲(總)一一米五三 2萩野(遞)

【投圓盤】1劉約翰(鐵)四〇米三二 2洪永基(徽文)三六米九〇 3萩野(遞)

【三段跳】1黃大峰(京師)一三米二三 2熊谷(京師)

男女排球選手權 京女高普軍惜敗

二女、龍中優勝

日本排球協會 朝鮮支部 主催의 第二回全朝鮮 排球選手權大會는 二十四日 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男女中等、一般等各部에나노아 一齊히 열리바 當日의戰績은다음과가트며 女子中等部에잇서서 京城女子高普軍은 準決勝戰에宿敵第一高女를 물리치고堂堂히決勝戰에드러가 第二高女와 아가자기한接戰끄테 京女高普舍淚惜敗하엿다 그리고男子中等部에는 龍中이優勝하엿다

◇女子中等部

(第一回戰) 第二高女 2 {2121…1312} 0 龍谷高女

(準決勝戰) 京女高普 2 {2121…1715} 0 第一高女

第二高女 2 {2121…148} 0 元山高女

(決勝戰) 第二高女 2 {2123…1921} 0 京女高普

【女高普】F 萬玉眞 陳德英 金金芬 K 淳順玉 沐己仙 金金李 B 子仁英 南玉三 辛金林

【一高女】F 野田本 小島山 K 田田子元 武眞鍋 B 賀垣瀨 芳梅河

◇男子中等部

(第一回戰) 龍山中學 2 {212121…171917} 1 平壤師範

(準決勝戰) 龍山中學 2 {2121…58} 0 第二高普

京城師範 2 {2121…1113} 0 善隣商業

【二高】F 緖貫植 永光弘 朴朝李 K 杜秀圭 東德旭 玄申金 B 憲杓 李建鎬 李洪金

【龍中】F 橋下馬 石山有 井猪若 K 上股根 曾 B 山川栖 中前島

(決勝戰) 龍山中學 2 {2121…1416} 0 京城師範

떼杯歐米존 米國이優勢

【윔블돈二十三日發聯合】떼盃歐米존決勝 獨逸對米國複式試合은 二十三日一勝一敗의 뒤를니어 暴行、米組獲勝하야 獨逸組를 이겨結局米國組二勝一敗로 優勢를보이고잇다

아린톤(米) 六三 五九 八六 六二 … 폰그람 한(獨)

中等野球豫選

大朝主催第二十一回 中等野球大會朝鮮中部 豫選第一日은 降雨로因하야 延期中이든바 二十四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京城工業對 咸興商業戰으로부터開始한바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갓다

咸商5A 京工3

咸興商業對 京城工業戰은 同午前九時五分부터 佐田(球) 中村 兒玉(壘) 三氏審判아래 京工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五A對三으로 咸興商業一勝

咸商	3 0 0 0 0 0 0 2 A
京工	1 0 0 0 0 0 0 2 0

3…5A

京師9 元中0

京師對元山中學戰은 同午後零時三十分부터 京師先攻으로 開始한바結局九對零으로 京師勝捷

京師	101 003 301
元中	000 000 000

0—9

仁商4A 龍中3

仁川商業對龍山中學戰은 同午後三時三分부터 龍中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三으로仁商勝

龍中	012 000 000
仁商	100 100 02

4A—3

英米아마拳鬪對抗 八對三으로英國勝

英國對米國아마추어拳鬪對抗戰은 七月二日 뉴욕市『야키-스·스타디엄』에서 『러니』氏審判아래行한바 雙方이母國의 名譽를걸머지고 悲壯한熱戰을展開하야 四萬의大觀衆을 絶熱狂케하든니結局八對三으로英國軍이快勝하엿다

九月부터實施될 籠球新規則 (下)

五、『뜨리불』의定義에關하야多少의變更이잇다 卽『볼』을바들때先手하든것(첨볼)은『뜨리불』로보지안는다 또드볼은 볼을잡는것도『뜨리불』로 看做치안는다 다른競技者로부터『볼』을移取하고저空中에서한번 또는여러번 치는것은『뜨리불』의開始라고看做치안는다

六、補缺選手가 새로이『코-트』안으로 드러올때에는審判에게自己의番號및位置또는相對者의番號까지合하야 報告할것이다 競技로부터 退場하는選手는其相對者를自己便補缺者에게 指示하든지 番號를傳하는것等은無關하다 이것은競技進行의遲延을回避하기때문이다

七、競技規則中의『파쏘낼·파울』때에 競技精神에 違反하는粗暴한 觸觸에對하야서는 競技者를除名退場하는 權限을審判에게附與한다。

八、競技場의境界線外의地域이狹搾하야 一米突距離의餘裕가업슬때에는 境界線內側一米突에 다點線을칠것이다 (完)

今日의運動

▲野球=中等野球中部豫選第二日 徽文高普對京商(午前九時) 中對善隣(正午) 咸興商業對京師(午後二時) 京城球場에서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최고치료약으로써찬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許可濟의公認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으로 추장을받게되엿스며 『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신령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별별치료를다하야 보아도효과가업는환자는 하로밧삐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効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로법에 미혹되야서는안된다。제일주의할것은오줌이다。보통우리가림질을알어내려면、소변을컵에다바더보곤、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떳다가러안젓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絲)다。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오줌을바더보와、실낫가튼림사(淋絲)가곳처어지지안코는것은 안된다。그럼으로소변을 보와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호면 안된다。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적어지고、통증도업서지며、고름도 잡히여 전쾌의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梅毒藥은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皇漢梅毒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副作用이絶對업는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기의감창、가래톳의치료는물론、제이기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류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곳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룸패증과 국부와전신증상이 점점히바하여저서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하로라도빨리본사의구매제(驅梅劑)를복용하야고치시라。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약특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약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 龍山漢江通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 麗水港 有田도락구 /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本町 有田도락구 /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 四平街金盛路 有田도락구 /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 哈爾賓傅家甸 有田도락구 /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남모르게苦痛하는 無毛若禿의原因과 털을나게하는原理

田中醫學博士의成功 ―說明書無代進呈―

頭髮、眉毛、腋毛、恥毛等의人體의毛髮部에 털이나게되는것은 그곳에各發毛機能을가지고잇는까닭입니다 卽毛母가잇고 그毛母는毛細管現象에잇서血液中으로부터 營養的으로 營養을吸收하야毛髮을發生成育식힙니다 그래서이毛髮은 依然빠저서드물게되며 는 營養補給을停止하면 毛髮發成機能에 黴菌侵蝕又甚하면 全部버서지게됩니다 恰似히草木이日光과肥料를주지안으면 말러죽는것갓슴니다 前帝國大學敎授田中醫學博士가 이點에着眼하야 前記와가튼原理를根本으로 털이나는藥『후미나인』을創製하엿습니다。毛髮도草木과가티毛根部에草木에잇서 肥料와가튼藥물을주어發生成育을促進식힌다는것이『후미나인』의 理論이며實際입니다 털나는藥으로는 各種多數로 其中에는效力에 疑心되는것이업다 고는斷言못하나 毛生藥은 『후미나인』이라는 毛生藥을爲先第一推薦함에躊躇치안습니다 무엇보다도他藥보다優越한點은처재는 田中醫學博士 創製된것第一에 皮膚病良藥テームス水本舖로 有名한東京藥院의 發賣品인 優良한藥인까닭입니다 近來內服毛生藥이紛紛될수업다고 富岡博士가明言하엿습니다 禿頭、病若禿、毛根不良、腫物禿、或禿、薄眉毛、男女얼지못할곳에 털이업는분은毛不足으로 模樣이조치못하여煩悶하시는분들은爲先『후미나인』을推獎합니다 發賣元은東京芝田村町四丁目東京藥院입니다 新聞名記入申込하시는분에限하야 詳細한毛生藥의說明書를 無代進呈하기로되엿습니다。振替東京三一八三三 毛生藥『후미나인』藥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送料內地六錢、鮮滿廿錢

毛生元藥 후미나인 全國藥店에有

京城 金 金地金分析賣買 銀 合資會社 杉山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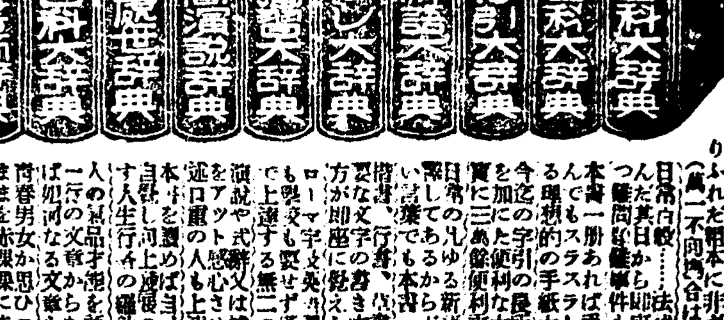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四番

殘本處分大投賣斷行

▲左の大辭典十冊合本定價十圓の處今回整理の爲め只の一圓に投賣す、(但金一圓は荷造送料共金廿六錢)代金引換は辭典送れと一ガキで申込次第直送致します

辭典拾冊 合本タダの金一圓



▼合本ですから一冊宛分賣は出來ません●大好評―禮狀續續到着す

特別景品 昭和十年用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庄川崎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各地方豪雨被害 豫想以外로深刻

長時間豪雨暴注로 黃海各線大混亂

翠野市엔百戶浸水

【海州】 해주(海州)지방에는 근일세우(細雨)가 계속하야 내리든바 더욱이 이십삼일오전부시경부터 비가 폭주(暴注)하기시작하야 침수(浸水) 또는 증수(增水)등으로 대소동을 이르켯다는데 피해상황을보면 대개다음과갓다

一、조철황해선천결역(黃海線泉決驛)과 영양역(迎陽驛)간과 동해주역(東海州驛)과 룡당포(龍塘浦)간은 엄청난증수로 말미암아 철도(鐵道)가 불통중인데 언제개통될는지는 아직모른다고한다

二、해주군신주막방면(海州郡新酒幕方面)석동면석학리(席洞面席鶴里) 영동면신광리(泳東面神光里) 취야(翠野) 해주간 동방도로(東方道路)上)가 취야 해주간의 대거면강정리(代車面江亭里)방면등 모다 막대한 증수로 말미아마 자동차불통으로 교통이 두절되엿다

三、경성 개성간(京城 開城間)의 전화전신(電話電信)이 불통으로 경성 해주간의 통신연락은 두절되엿스며 또한 평산 군정원(溫井院)과 해주간의 전신전화도 불통되엿다

四、해주군가좌면취야시(海州郡加佐面翠野市)는 취야천지류(翠野川支流)증수로인하야 백여호가 침수로서 큰물소동을 이르키고잇다

보도한바와가티 조철황해선천결역(泉決驛)과 영양역(迎陽驛)의 중수로 철도가 불통됨에따라 종래토성(土城)을 경유하야 경성(京城)으로가든 우편물은 사리원(沙里院)을거처 경성으로 가게되엿스며 일반려객(旅客)들도 사리원선(沙里院線)을리용케 되엿다고 한다

陵谷一帶에는 浸水家五十戶

【陵谷】 지난 이십일일부터 나리는 비는 간단업시 중수하야 한강수위가 각일각으로 놉하이 십이일 오후십시경에는 도디여 룡곡부근을 비롯하야 연안일대의 청파(靑坡)가 도도하든 경지가 삼시간에 나혀(?海)로 변하야 도처의 교통은 두절되고 침수된 가옥이 신평리(新坪里)에 사십호 행주(幸州)에 십호에 달하게 되바 소관룡곡경찰관 주재소와 지도면 사무소(知道面事務所)에서는 밤을새여가면서 룡곡 소방조원(陵谷消防組員)을 출동식혀 구호에 노력하여다하며 행주천주당과 룡리진흥회당을 뎁시 피란소로 정하고 이십삼일 오후네시까지에 리재민 삼백명을 수용하야 응급구호 중이라는바 다행이인축(人畜)의 피해는 업는모양이라 한다

漢江上流氾濫 田畓被害莫大

【忠州】 이십일일이래의 호우로한강상류지방은 급격히 증수되여 이십삼일오전중에 충주 탄금대(忠州彈琴臺)에는 수위십구척이 되여 연안일대의 전답이 수되여 피해가 막대하다고하며 각처 교통도 전부 두절되여 언제나 완전히 회복될는지 아득하다고한다

楊州郡一圓에는 浸水面積五千町步

家屋流失도多數

【德亭】 금번 폭우로 말미암아 양주일대(楊州一帶)에 침수면적은 실로 오천여정보에 달하엿는데 그중에도 이담(伊淡)、회천(檜泉)、시둔(柴屯)、로해(蘆海)등지가 우심하고 동군회천면덕정리(檜泉面德亭里)는 부근청담천(淸潭川)과 천천(泉川)제방파괴와 범람으로 침수와 토사매몰로 농작물은 전멸상태이며 견고를 자랑튼 덕정교(德亭橋)도 류실되엿스며 양주군내 각처에 침수된 가옥과류실된 가옥도 상당히만흔 모양이다

汶山地方에는 家畜被害不少

浸水家屋八戶

【汶山】 이십일밤부터 호우로 말미암아문산(汶山)시내가 침수되엿다한은 긔보하얏거니와 또이십이일부터 임진강(臨津江)은 증수되야 문산(汶山) 시내는 제이차로 수십호가 침수되엿스며 가축피해로는 도야지등의 류실이상당히잇고 농작물의 피해는 이백정보나 되리라한다 그리고 파주군 주내면(坡州郡州內面) 파주리에는 이십삼일아츰현재 침수가옥이 마산(馬山)망란(網蘭)량동에 팔호이엿고 도괴가 일호 침수전답 백여정보 유실전답 십여정보나 된다고한다

授業料滯納으로 授業中兒童을逐出

秀峙公普校의脫線的處事에 一般學父兄側憤慨

【川內里】 여름 방학을 압두고 수업료(授業料)를 못내는 아동들을 학교에서 모다축출식켜 천진난만한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주엇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동교교장 모씨는 자긔가 담임한 사학년생중 금월분 수업료(七月分)를 내이지못한 아동수명을 그와가치 교수시간에 축출식켯스며 기타 학년중에도 십여명 아동을 그와가치 하엿는바 일반학부형은 탈선적 처사에 분개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이일에 문천수치(文川秀峙)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내지못한 아동 십여명을교수중에 하야 탈선적 수단으로 나아가지 하는바 어니와 지난 이십 ... 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하야서는 피해정도에 의하야 회사측에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것입니다

黃海個人庭球 長淵支局後援

【長淵】 황해도장연서원(長淵書院)에서는 본보장연지국 후원하에 전황해개인정구대회를 오는 팔월십사일 오전구시부터 장연공보코-트에서 개최할터인데 참가 자격은 황해도내에 삼개월 이상 현주자로써 하고 경긔는 일본 정구련맹 경긔규측에 준하고 우승조 (優勝組)에게는우승컵을 수여할뿐만아니라 왕복려비까지 지급하기로 되엿다는데 각군내 선수들은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하며 신입은칠월말일까지 장연서원으로 신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全州新興校同窓會

【全州】 전주에잇는 사립신흥학교(新興學校)에서는 지난 이십이일오후세시에 동교 강당에서 제일회 고등과졸업생 동창회를 개최한할때 공교히 검거망을 피하야 간도방면에서 역시 공산주의운동에 루신활동한후 로서아로를 어갈라고 하다가 ... 원검사국에 송치되엿다고 한다 (?)

... 안용선(安路濟)씨사회로 ... 회장 외 ... 선정하엿다

▲會長 印郭▲副會長 白安基 ▲幹事 安路濟 李一男 申東起

평군 량덕면 작도리(定平郡德面鵲島里)에 본적을둔 김봉연(金鳳淵)은 지난이십일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다고 한다 ... 청진경찰서(淸津署)에 피검되엿는데 ... 못하고 도로 조선에드라오든중

定平農組幹部 金鳳淵送送局

【咸興】 제일차 정평농조(定平農組)에서 중요간부급으로 활동하다가 쇼화오년 총검거를 당하야

平壤聯隊爆擊機二臺 霧務로不時着陸

搭乘者三名은重傷

【咸興】 라남보병련대(羅南步兵聯隊)에 참가할려고 평양에서 라남까지 비행하든 폭격기삼대는 농무로 착륙하지못하고 그길로 돌아가든 도중 이십이일 오후팔시경 한대는 성진군학서면 전덕산령(德山嶺)부근에서 불시착륙하여 긔체가 대파하고 조종자 대석(大石)상등병외 탑승자이명은 인사불성의 중상을입엇고 또한대는 홍원전진(洪原前津)또일대는 홍원령(洪原嶺)에 착륙하엿는데 탑승자는 모다 무사하엿다 한다 바 함흥련대에서는 삼십오명의 구조대를 파견하엿다고 한다

鑛石을싸코도는 大詐欺團打盡

扶餘署에서取調미치고 一團檢局으로送致

【扶餘】 근일 금광열이 팽창하야 경향을 물론하고 일확천금의 허영을 몽상하고 광산에루 왕선하야가는자 이즈음 그바면에 잇서서 금광중자고도는 범죄사건이 늘어가고 부여에서는 업는광석을 잇다고 가장하고 허위매매하고도 한광석을 배에식고가다가 미리계획하여두엇든 폭력단을식혀중간에서 도모한 폭력을 걸한 거연행을 도모한 폭력을 걸한 대사기사건이 발생하엿다 이사건의 관계자는

◇被告者 京城府本町五丁目 藤田安一(一)假名 京城府舟橋町 無業 松本藤者(三)假名 京城府某町 無業 申鉉晉(三)假名 扶餘郡 鳳山市

旅人宿 洪三好(三)假名

◇被疑者 本籍 洪城郡結城面邑里三四六 住所不定 李來永(二) 住所 扶餘郡扶餘面旧衙里 任麟久(二) 住所不定 金在一 鎮內吉外六名 扶餘郡窺岩面金岩里 金鍾明(二)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피의자중에 리태영 김재이 임종구조병길등이 공모하고 금번 입힐에 금광소개업자인 송영(松永)에게 중석(重石)이 십톤매를 견본품으로 보내고 김재이 (金在二) 조병길(趙丙吉)에게는 중석 이만근을 가지고 잇스니 팔어 달라고 사실무근한 일을 의리하엿다 송영(松永)은 이것을 사실로 밋고 삼전(森田)에게 소개하엿스므로 삼전은 서사로잇는 길촌(吉村)을 松永(松永)과가티 지난 삼십일에 리태영(李泰永)의 현주지인 부여에 보내여다 한나 그리하야 길촌(吉村)은 전긔 리태영등에게 사실유무를 르니 김재이(金在二)로부터 중석매매의뢰를 실지로 바든것처럼 말함으로 길촌(吉村)은 주인 삼전(森田)에게 『틀림업습니다』고 타전하여 이튼날(四日) 삼전이가 도착하자 리태영등은 동일한 수단으로써 속이고 위선 중석팔천오백근을 매근사십전씩에 매매게약을 하고 게약금으로 삼백원과 하초비로 륙원오십전을 편취하고 록입에 중석을 운반하겟스니 귀암면 금암리 김종명(金鍾明)집압 금강에서 배에실음터이니 그곳에 오라고 하엿슴으로 삼전(森田)은 길촌(吉村)을식여 그곳에 보내엿드니 그들은 지금 운반중이니 잡간 기다리라 하므로 배에서 기다리든사이에 준비하여둔 폭력단을 식혀 합성을치며 리태영은『큰일낫스니 급히 다러나자』하고 길촌을 쫏차옴으로 배에서는곳으로 려펀으로 돌아왓다한다 그리한후 리태영은 말하기를 룩량한중석구원하는것처럼하여 부여운송가 을 고가로팔려고하야 소요케할혼기회를보아 보내겟스니 가서 잇스라하여 보내여노코 리태영등은 삼월십삼일에 도송영에게 소개하여달라함으로 경성주교정(舟橋町)송본모(松本某)에게 소개하여 동일한수단으로 운임삼십원을 편취하여 먹은후 송영은 그제야그내용을알고 리태영등과 행동을가티하기로하여 결국 사백삼십여원을 편취한내용이 경찰에 발각되여 부여서사법계에서는 저간경성등지에 출장하야 조사하는등 맹렬히활동하고 피의자전부를 일망타진하고 엄중취조중이든바 수일전강경사국에일건서류와가티 송치하엿다한다

暴風에船舶顚覆 人夫六名이溺水

그중四名은救助二名은溺死

仁川月尾島附近에서

【仁川】 지난이십삼일오전팔시에 인천에 입항하야 월미도 (月尾島)해안에 정박중이든 『리오』환에서 하역중이든 인부륙명이일을 맛추고 인천으로 도라오든 도중월미도근해삼십미돌(米突)지점에서 때마츰 쏘다지는 강우로 길을일코 풍랑에 밀리여잇는것을 때맛츰 군산(群山)에서 온는 어선 장춘환(長春丸)이 이를 발견하고 『룸부불』을던저 구원코자 하얏스나 배는 맛츰내 전복되야 선원륙명중 사명은 구원되고 금곡리(金谷里)박상점(朴相詁)(三)홍만산(洪萬山)(三)은 맛참내 익사하고 말엇다 그즉시 시체를 찻고자 경비선 등환(藤丸)이 출동하얏스나 시체는 아직 찻지못하얏다 한다

地主의 何等의 諒解도업시 田畓을 侵害한다고

新電의怪處事에 關係地主大憤慨

【定州】 신의주전긔주식회사에서는 지난십오일부터 정주―령미간(定州嶺美間)륙백여전주(電柱)의 송전선개수(改修)공사를 백여인부를 사용하여 방금진행중의 농작물우에서 진행하게되여 농작물의 손해가 부소함뿐안이라 지주의 승락도업시 공사를 함으로 이에분개한 지주등과현장에서 로여하든인부들사이에서로 충돌까지 잇서서 격분한지주대표오명은 동회사정주지점에 질문까지하엿다는데 지주들이밧는 손해는물론 송전공사로인하여 정주시내에는 십일간이나주간 송전을 정지하엿스므로 각공장의 손해가 부소 하다는바모공장주등은 신의주본사를 방문하는등 평시에도 정전(停電)의 도수가 빈번하여 원성이놉든만큼 일반의 비난은 더욱크다고한다

地主 某氏 談

지주의 승락도업시 공사를 하면서 방금 성장중의 농작물우으로 백여인부가 들어다니면 농작물은 어떠케됩니까? 그래서 말마되나 하엿드니 도리혀 자긔편에서 큰소리를하므로 그부당을 회사측에 말하는 동시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바드려합니다

定州支店長 談

정주―령미간 송전선이 룸와전하여 경전등이 빈번함으로 이를개수하고저 정주시내의 공장측의 양해를 어더가지고 주야로 공사를하는 것이며 지주의 승락을 맛지안코 한 것은 ... 측량의 요하든바 회사측에서 주의하겟소 ... 이를 무시한것은 안이고 또 그리하야 대할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작정이올시다

松蟲의繁殖으로 數百町步松林全滅

平南各地에서大騷動

【平壤】 산간의 『괴한』 송충(松虫)의 대번식(大繁殖)으로『에스·오에스』(SOS)를 련발하는 평남의 송산지대(松山地帶)―솔나무만키로 이름놉흔 긔자림(箕子林)을 비롯하여 모란봉(牧丹峰)공원일대송림에 송충이 번식하여 죽는나무가만허 소멸에 두동거리가 되여잇는중에 송충은 금춘부터 대동군림원면(大同郡林原面)에서 번식하여 금춘부터 고구려(高句麗)시대의유적대성산(大聖山)에서 동군시족면 (柴足面) 삼신동(三神洞) 명업소압가의 송산과 강동군 만달면(江東郡晩達面) 삼등면(三登面) 방면까지 수백정보의 송이 모다 전멸상태에 잇서산은 적색으로 변해가고 잇다는바 죽는솔은 십년생에서 이년생이 대부분으로 만일 이대로 두어둔다면송충은 매년 번식하여 평남일대의 송산은 전멸될것으로큰문제거리가되여잇다한다

孝烈行表彰式 李、鄭兩婦人의

泗川古邑里에서

【泗川】 경남 사천군 정동면 고읍리(泗川郡正東面古邑里)에서는 지난 이십일 오전열두시경에 동리청년회관내에서 남녀로소 다수 집합리에 효렬행표창식(孝烈行表彰式)이 두사람에게 잇섯는데 포창밧은 부인은 동리배동주(裵鳳柱)씨 자친 리경남(李慶南)(六一)부인과 동리구윤식 (具允植)씨의처 정씨(鄭氏)(三二)의 두부인이라고 한다

新高陸上競技部員 平北一周마라손

本報支局後援下에

【新義州】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륙상경기부(陸上競技部)에서는 금번장동원(張東源)、김세덕(金世德)、백룡운(白龍雲)의 삼군을 선태하야 평북일주마라손의 장쾌한 경기를 본보신의주지국후원하에 행하기로 하엿는데그 일정은 다음과가티 래이십오일 오전 여덜시 신의주를출발하리라하며 이는신의고보 최초의시험으로 일반의비상한인긔를 끌고잇다는바 본보각지국에서는 만흔후원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1	新義州	七月廿五日午前八時發
2	車輦館	同廿五日午後着 同廿六日午前八時發
3	定州	同廿六日午後着 同廿七日午前八時發
4	孟中里	同廿七日午後着 同廿八日午前八時發
5	寧邊	同廿八日午後着 同廿九日午前八時發
6	球場	同廿九日午後着 同卅日午前八時發
7	熙川	同三十日午後着 同卅一日午前八時發
8	前川	同卅一日午後着 八月一日休息
9	江界	八月二日午前八時發 同三日午後着
10	外貴	八月四日前八時發 同
11	渭洲	同 四日後着 五日前八時發
12	楚原	同 五日後着 六日前八時發
13	楚山	同 六日後着 七日前八時發
14	碧潼	同 七日後着 (一日休息)
15	昌成	同 九日前八時發 九日後着
16	淸城鎭	同 十日前八時發 十日後着
17	新義州	同 十一日前八時發 十一日午後着

瀆職裁判所員에게 一年半役을求刑

新義州法院에서

【新義州】 신의주지방법원 강계지청원(江界支廳員) 최공진 (崔公鎭)은 그가 재판소의 직원으로 잇는것을 긔회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범인으로부터 바든뇌금기타 수백원을 횡령하얏섯는데 그동안 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의 취조가끗나 지난 이십일 신의주지방법원합의부의 공판이열리어 사실심리를한후 립회검사로부터 일년반역의 구형을 하얏는데 언도는 오는이십구일이라한다

殖產組理事 巨金을橫領

【新義州】 평북 박천군 룡계면원산동 (博川郡龍溪面元山洞)사는 라주명(羅柱明)(四八)은 그곳식산조합(조합원이 이백칠십명자)의 리사의 요직에 잇스면서 오백팔십회에 궁하야 장부를 위조하야 가지고 팔천구백여원을 자긔의 대금에 류용하야 조합으로 하야금 리자로 이천오백여원의손실을 보게한사실이 발천경찰에 탐문한바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밧고잇다한다

地方人事

▲李健鎬氏(忠州郡守)原州郡守轉任人事次 本報忠州支局來訪

平壤

第四回全朝鮮少年蹴球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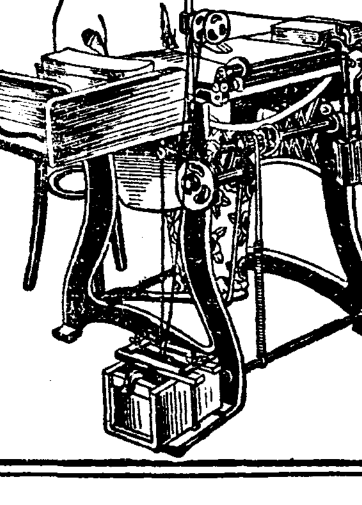
▲時 日 八月十五六兩日
▲期日申込所 八月十三日正午까지
▲場 所 崇專運動場
◇主 催 崇專Y·M·C·A·體育部
◇後 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宣川

農民雄辯大會

▲時 日 八月九日
▲場 所 宣川郡農民社
▲申込期日 七月二十五日까지
◇主 催 宣川郡農民社
◇後 援 本報宣川支局

百圓餘의資金으로



副業에紙袋製造 前途有望하고 收入確實

郡會農村의副業에又는本業에婦女子라도簡單히되는깨끗한일로서紙袋의製造를動奬합니다。遠地라도通信敎授에依하여完全히되며弊店에서原紙의供給。製品의引受等絶對로責任하며年中無休의去來를합니다

弊店特製의製袋機를特別割引으로서分讓하여散在한中에永久히買受한니다。萬一中途에업서되는完成品을現金으로永久히買受할것을保證하고貴任을가지고서는일의中止도는買受를拒絶하는일없이確實하게大阪의實在品을取扱합니다 希望하는분은卽時申込하시요。今回의部員이附送할것이니詳細는弊店에에물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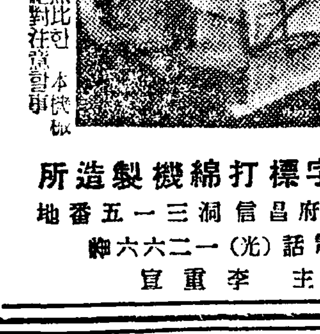
大阪市東區玉造本町十八 丸見屋本店 振替大阪五九三六

新案特許 興字標打綿機元祖

京城生産品評會優秀賞牌 朝鮮博覽會優秀賞牌 受領

登錄 商標 (興)

興字標最新型倍積式打綿機 興字標最新型操綿機械各種



本機의特色 絶對他機械의倍勝無比한 奸商의類似商標를 絶對注意할事 (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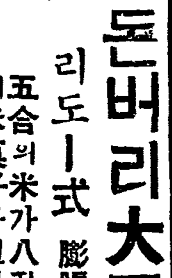
興字標打綿機製造所 京城府昌信洞三一五番地 電話(光)二一六六番 主 李重宜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無곳되는 와實益具備學生動人婦女子最도適한일 休永續할眞實한분에依賴한엽서로申込 詳細通知함 趣味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돈버리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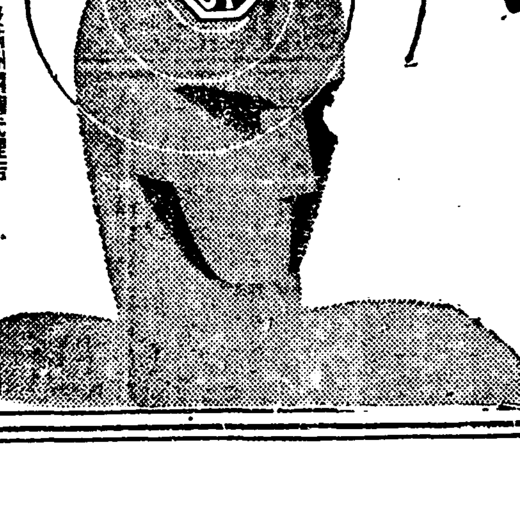
新刊発行 가다로구進呈

리도ー式 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된다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神經衰弱治療劑



各藥局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

日本及滿洲國總代理店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フイチン 후이진

頭腦가明快하고 記憶力이增進합 神經衰弱 學問嫌忌 健忘症을治療 體力活動力을旺盛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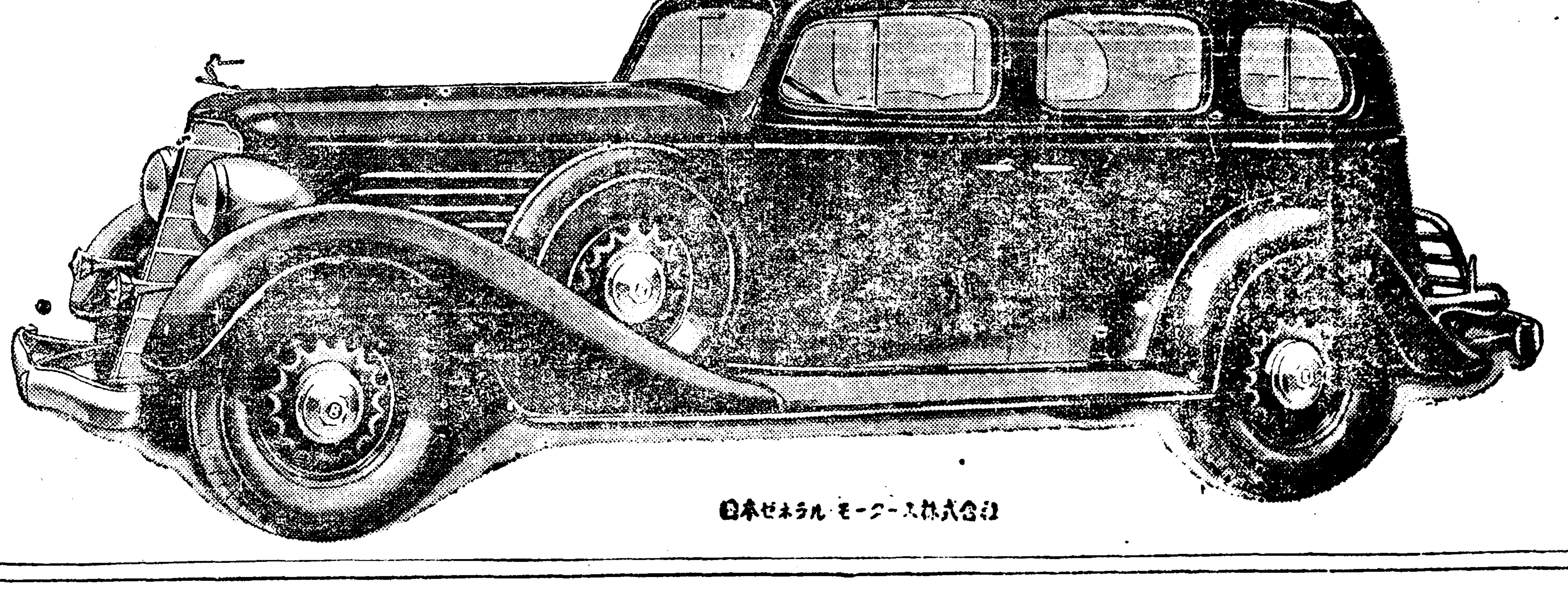
二十錠入定價一圓二十五錢

說明書進呈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西川 日本工業化學社 ビル 滿洲及朝鮮에서는 申込하면卽時郵呈함 10—5

强力 男性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도로스진 (錠劑及注射液)

▲精力·體力·活動力의增强과早老防止▼

三十年의歷史와三十年의信用



빅구의堂堂한威容과氣品잇는體構와는빅구가갓고잇는信賴性과完璧의機構와를如實하게 나타내고잇습니다。빅구三十有餘年의歷史를通하야不動의優位와不變의信用을確保하면서잇는事實은全혀그內包한優秀한價値에依하는것입니다。

京城自動車株式會社

京城府長谷川町 電話本局776番

産業

가지가지로닥처오는重壓
苧麻工業에까지 恐怖時代臨迫!
纖維工業中單只하나남은 斯業에鍾紡이進出

日本內地大財閥은 最近 破竹之勢로 朝鮮工業에 進出하야 在來의 中小工業及副業的家內手工業은 恐怖時代를 出現하게되엿는데 別項 聯合東京電에 依하면 鍾紡에서는 今回纖維工業中 單只하나밧게 아직 손을 대이지안코 남어잇는 苧麻工業에까지 進出하게되어 그 準備工作에 着手하게되엿다 한다 苧布는 古來로 朝鮮사람에게는 업지못할 代表的夏節衣料로서 널리 慣用되어오는것이나 아직 機械에 大量生産하는 段階에는 達하지못하고 農家의 副業으로서 手機로 製織되어오는터인데 萬若 鍾紡이 그 大資本의 威力을 가지고 苧布를 多量生産하야 廉價販賣를 開始하게되면 이러한 資力과 市場支配力이 薄弱한 在來의 副業的 群小苧麻工業은 그製品이手織이니만치 機械織에 比하야 精巧하다고는 할지나 餘地업시 破滅하게될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어서 斯業의 前途는 極히 憂慮되며 延하야서는 날로 疲弊하야 가는 農村經濟는 一層 窮乏의 深淵에 陷入하게될것으로 자못 그推移는 注目되는바이다

大田、全州等地에 苧麻試栽開始
苧麻會社를創立計畫

【東京電話聯合】鍾紡에서는 今回 纖維工業中單只하나 남어잇는 麻工業의 라미ー工業에 進出하게되어 該原料인 苧麻栽培를 하고저朝鮮의 大田 全州 日本內地는 宮崎縣에 苧麻栽培를開始하얏다 이成績如何에依하야 朝鮮라미ー會社를 創立할豫定으로 近年 라미ー乃至 製織布의 需要가 旺盛한이지음 鍾紡의 라미ー工業은 原料苧麻의 自給自足을 計畫하고잇는이만치 業界로부터 자못注目되다

【註】=라미ー라는것은 苧麻를 稱함이다

麻織物需給狀況

그러면 苧布만의 朝鮮內生産狀況及 需給狀況을알만한 資料는갓지못하얏스나 이제 麻織物全般에對한 數字를드러 參考에 供하면 生産狀況은

▲朝鮮內麻織物生産高

	昭和六年 數量	價額	同七年 數量	價額
	方碼	圓	方碼	圓
廣幅物	[illegible]	[illegible]	不詳	[illegible]
小幅物=麻布及兩麻布	[illegible]	[illegible]	不詳	[illegible]
綿織麻布	[illegible]	[illegible]	不詳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不詳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이고 다음에 輸入狀況을 보면 그輸入額의 거이는 中國麻布로 昭和九年度의 輸入高는 四百四十三萬 九百三十五方碼 百八十七萬二千五十一圓을 算한다 輸入되는 麻布의 主要한것을 擧하면 京莊夏布、揚莊夏布、粗靑布、五百尺夏布、七百五十尺夏布、七百七十五尺夏布、八百尺夏布、千尺夏布、千五百尺夏布、江西夏布、湖州千尺夏布、新紗、酒川夏布、貝靑紗、少疋哆囉麻、長尺哆囉麻、小寧都布、會月布、大寧都布、潮綸 二十三種으로 이를 品質로大別하면 粗布、羅布 紗布의三種으로 分類된다 그런데 此等巨額의輸入麻布는 專혀 華商의손을거처서 販賣되고잇다 그리고 需給은 每年 四五月부터 七八月에 이르는 期間에取引되는데 最近은 日中事變後의 兩國의 空氣가 銳敏히 反映되어 輸入은 顯著히 減少되엿다 그結果 擬麻布及 北布가麻布代用品으로 急速한進出을 보이어 昭和八年度의移入額은實로七十四萬六千圓에 達하고 一方朝鮮産麻布類가 六百七十三萬七千圓을 算함에反하야 中國方面으로부터의 輸入은僅僅百十七萬圓으로激減하얏다

苧麻生産狀況

苧布의 原料인 苧麻의 生産도 거이 南朝鮮에限하고 他道에서는 그리産出되지안는다 即그産地에 忠南의 舒川、保寧、靑陽、全北의 井邑、高敞、全南의 長城、長興等이잇다 右中品質이優良한것은 舒川、韓山地에서 産하는바 그朝鮮內 生産狀況을보면 다음과 갓다

▲苧麻收穫高遞年表

明治四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四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大正元年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平原安州一帶 大豊豫想
但綿作은除外

【平壤】豊年歌부르는 平原、安州兩郡—道農務課調査에 依하면 平原、安州一帶의 乾畓地帶今年作은 今春의 長期乾燥로 一時 不作을 豫想케하고 잇든中 六月下旬以來 百「미리」以上의 降雨가 잇섯고 그우에 昨年에比하여 高溫이엿든까닭에 農作物에 好結果를주어 水稻作一割五分增 乾畓稻作 二割增 大豆二割增 粟作 一割五分增 其他雜穀 良好 棉作만이三割減少狀態로서稀有의 大豊作이라 한다

商品取引便覽 ⑭

莞草製品 及其他의纖維加工品

▲生産高
◇製造戶數=二六四、二九三戶
◇生産金額=一、〇〇七、一七六圓
▲調査數
◇調査戶數=一八戶
◇生産販賣額=一六八、六二五圓
▲出廻期
◇莞草製品=自九月至翌年三月
◇麻炎、藁繩及其他=自四月至十一月
▲包裝荷造
◇莞草製品=江華莚一九貫(三十枚를一個으로하고 거적대기로싸며荷造費用一個에對하야約十五錢)莞席=五十枚를一個으로하고거적대기로싼다 十枚를一包로四十打를一個으로하고하로포셔로 于先싼後 거적대기로싸거나 또는木箱子에 넛는다
◇麻炎、藁繩及其他=麻炎藁繩 緊繩等은 거적대기로싸고 竹製品은 木箱에넛는다
▲取引經路
◇莞草製品
◇生産者—組合—外國貿易商
◇生産者—消費地問屋—小賣商—消費者
◇生産者—組合—消費地問屋—消費地小賣商—消費者
◇生産者—消費地小賣商—消費者
▲麻炎、藁繩及其他
◇生産者—組合—消費者
◇生産者—仲買商—小賣商—消費者
◇生産者—小賣商—消費者
▲主要한販路
◇莞草製品=朝鮮內、日本內地、滿洲、米國
◇麻炎、藁繩及其他=朝鮮內各地
▲取引方法
◇莞草製品=現金取引을主로하고 先金又는代金引換으로한다 委託取引은相方의信用에依하야 月末決濟를하는일이잇다 組合、生産者間에잇서서는 組合으로부터 미리生産者에 資金의七割가량의先金을無利子로融通하는일이잇다
◇麻炎、藁繩及其他는四十日乃至五十日의延取引으로하고 他는見本에依하야現金取引을主로한다
▲製造方法
◇莞草製品=[illegible]
▲原料의種類及産地=莞草 麻炎 藁繩及其他—麻 藁 莞草 生産地附近의것을使用한다
▲生産高
◇製造戶數=七戶

刷毛及刷子

◇生産金額=五七、四一四圓
▲調査
◇調査戶數=六戶
◇生産金額=五七、四一四圓
▲調査數
◇調査戶數=六戶
◇生産販賣額=五一、四〇〇圓
▲出廻期=自二月至五月 自九月至十一月
▲包裝荷造=刷類에依하야다르나 보ー르紙에너어 木箱子에넛코 색기로묵는다 큰것은거적대기로싸는일도잇다
▲取引經路
◇生産者—消費者
◇生産者—仲買商—小賣商—消費者
◇生産者—小賣商—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各地及滿洲
▲取引方法=見本에依하야 代金引換或은 荷爲替를 取組하는일이만타
▲製造方法=原料를選別하야 藥液에 十日前가량담것다가 選毛洗滌、曲毛를펴는等의 工程을經하야 木部의穴에植毛結付하야만든다
▲原料의種類及産地=豚毛、馬毛、山羊毛、木材、主로朝鮮産을使用하나 一部는 日本內地産及中國産을使用한다

螺鈿漆器及漆盤

▲生産高
◇製造戶數=五五五戶
◇生産金額=二八一、五四四圓
▲調査數
◇調査戶數=四戶
◇生産販賣額=三六、〇〇〇圓
▲出廻期=通年
▲包裝荷造=各各個에넛코다시큰木箱子에넛는다(螺鈿漆器)
▲取引經路
◇生産者—小賣商—消費者
◇生産者—仲買商—小賣商—消費者
◇生産者—行商人—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各地及日本內地
▲取引方法=現物에對하야 旣往注文에應하야 現金取引을主로하고 手形에依하는일은드물다
▲製造方法=螺鈿漆器—充分히乾燥한 木材를 所定의 大、型으로組立하고 漆을칠하고 布片을붓치고 다시漆을칠하고 貝를付하고 다시漆을칠하고 貝를磨한다
▲原料의種類及産地=貝는鮑貝、夜光貝、黃蝶貝、黑蝶貝를使用하고 漆、貝는모다 朝鮮産、日本內地産을使用한다

全羅는降雨未洽 依然移秧不良
靈岩、務安、咸安은植付絶望
當局代作、救濟策講究

이번降雨는 中部京畿를 中心으로하야 南北兩端을 除外한 各地에 冷濕을 보앗슬뿐 아니라 京畿에는 그程度를 넘어 洪水의 被害까지잇게 되엿다 그런데 旱魃乾燥로 移秧이 完了되지못하야 問題中인 全羅道는 依然降雨不足의 狀態라한다 二十四日 總督府農産課에온 全羅道의 移秧狀況을보면

▲全南各地 二十三日 까지의降雨量(粍)
光州三一 靈岩無 潭陽九〇 谷城四〇 求禮三二 和順四〇 務安四 羅州二五 咸安九 靈光二 長城一三

으로 潭陽、谷城、求禮三郡은三日內에 植付完了를 豫想이며 光州、和順、羅州、靈光、長城五郡은 九割步의 未完部分에 호미(鋤)로 移植하는데 그結果가未詳、靈岩、務安、咸安三郡은 移秧의餘望이 全然업다고하는바 全南二十五日까지의 總豫想은 植付九割一分三厘의 進捗을보리라한다

▲全北雨量은 群山百十五粍、高敞十一粍로 二十五日까지의移秧豫想은 九割二分三厘로 未了部分은 今月末까지適當한 降雨가잇스면 約六割의 收穫은 어드리라고한다 以上兩道의 移秧未了地에 對하야 當局에서는代作을 着着準備中이라는데 鐵道局과의 種子運賃割引 乃至免除交涉을 하는中이며 農産課에서는 社會課와 連絡하야 그救濟策을 講究中이라고 한다

朝石의建設費 四百五十萬圓

朝鮮石油元山工場은 目下 建設豫定計畫下에 間組에서 整地中이라는데 一方 製油機械는 入月木村專務가 上京하야 日石과 協議하야 購入하게 되엇슴으로 豫定과가티 工事가 進捗되리라한다 그리고 工場建設費는 工場用地四十萬圓 左增建築費 機械代四百二十萬圓 合計四百九十萬圓가량으로 鐵材의 價低로豫定보다 四、五十萬圓減額을 보리라고 한다

密漁嚴罰을 慶南서要望

密漁取締는 各道에 嚴重를期하는터인데 그弊害가 적지안음으로 最近慶南의 漁業權者로부터 그根絶方法으로 密漁罰則의 强化에對하야 總督府水産課에 要望이잇섯다고한다 現在密漁罰은 漁具 魚獲物의 沒收와 五百圓以下의 罰金制度가 잇는데 漁具의處分은 當設부로커가 暗躍하야 廉價로 買하며 罰金刑도 四、五十圓이어서 處罰의 打擊이 輕微하기때문에 密漁가不絶하야 最近激增의 傾向이라는 것이다 當局에서는 漁業令에依하야 處罰하는 嚴罰의 方法이 엇다고하나 行政的處罰에 依하야 重한取締가 잇스리라고 한다

朝窒서本宮에 變電所를新設

朝窒에서는 咸興府面 本宮附近에 新設되는 各種工場에 供給할 工業用電力을 엇기爲하야 本宮에 六百萬九千키로 뿔트안페아의 大規模變電所를 新設하야 同社赴戰江 水力發電所로부터 興南工場까지의 旣設十一萬뿔트 送電線과連絡하야 그 所要電力을 供給하게되엿다한다

慶南五十個所의 小漁港修築計畫
水産會에서道에建議

慶南水産會에서는 國庫補助를어더明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總工費五十萬圓을計上하야 五十個所의小漁港修築을하려고 十九日道當局에建議案을提出하엿다는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慶南道管內沿岸各地方의 小漁港及그施設等은 沿岸漁業者大多數가 每日利用하는狀態이나 그施設이不充分하야 不便이만흔데現在貧弱한漁村의情勢로보아서 그修築이困難할뿐만아니라 昭和八年의暴風雨로因하야 거의破壞된漁港의窮狀이그대로남어잇서 漁業者는 크게不利하게되는터인데道에서는 昭和八年度부터 五個年計畫으로三十二個所의小漁港修築을開始하야 十年度까지十二個所의漁港을完成하엿스나 一個所平均四、五千圓의地方費補助(六割)와四割의 住民負擔으로實施를 본關係로水商을 充分히利用하지못한點도잇슴으로 今後十個年繼續事業으로 道內五十個所의小漁港을修築하되 一個所平均一萬圓合計五十萬圓의經費로서 太半은國庫補助를要望할터이라한다

龍塘浦港의貿易
上半期八百四十萬圓
比四年前八倍의激增

【海州】龍塘浦港 築港以來 貿易額은 날이갈수록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고잇는데 今年一月부터 六月末까지의 上半期移出入 貿易額은 八百二十九萬七千七百五十三圓五十錢으로서 只今으로부터 四年前인 昭和六年度 移出入 貿易額 三百二十一萬四百七十一圓에 比하면 約八倍의 激增를 뵈이고잇다

發展途上에잇는 江原道의養蠶業
畦畔과傾斜地를利用하야植桑
當局에서도指導獎勵

江原道는 元來 山地가만허 高地帶에 屬하는部分이 적지아니하야 比較的低溫인關係로 養蠶을 重要視하지안는 傾向이어서 近來田畓의 畦畔과 林野傾斜地를 利用하야 植桑하는 農家가 增加함을 따라 桑田面積이 激增할뿐만아니라 新養蠶法을 應用하야 合理的養蠶을 經營하는者가 漸次로 增加함으로 그收繭高도 느러가는 傾向이어서 昨年度는 七萬五千石에 達한다는데 今年度收繭은 一割以上의 增加를 보리라고 한다 그리고 以上과가티 江原道養蠶이 發達道程에잇서서 農家의 現金收入에 크게 期待되는以外에 他道에比較하야 一大特徵이라고할것은 桑田의 大部分이 純農地가 아니고 畦畔이나 林野로利用하야 되것인만치 그야말로農家의 副業으로 適宜한것이라한다 그리고 當局에서도 그助長策에對하야 講究한바잇서서 桑苗植樹의補助及 肥栽料勵、指導員配置 上簇改良獎勵 其他諸施設의 完備에 活動하고잇다한다

十年計畫으로 堆肥를增産
平南서明年度부터

【平壤】平南道에서는 自給肥料인 堆肥의 增産獎勵에 對하여 近年 設備改善、材料採取、製造方法의改善等에 全力을드려 昭和三年度부터、每年 道農會主催로 競進會를 行하는바 結果로서 最初의 段當百十六貫의 製造가 九年末에는 平均二百十六貫에 達하여 約二倍의 增産을 보혓고 品質에 잇서도 進步가잇서 道當局에서는 今後 一層堆肥增産을 위하여 昭和十一年부터 十個年計畫으로서 段當製造高 平坦部 中間部는 各三百五十貫 山間部는 四百貫을 目標로 積極的獎勵를 行하기로 되엿다 한다

鰮油肥問題 過去와現在及將來 (5)
朴炯壽

(2)、三個會合과 三菱、合同水産組合間에 締結된 基本契約의委托販賣轉化

總督府當局까지 合하야말하면 元來四個會合이지마는 總督府當局은 斡旋役으로서 會議에干與될으로 除하겟다 아三個會合이라함은、三菱商事及合同油脂、生産者의 代表機關水産組合、在來의緣故買受者機關인共同販賣組合、(三菱合同은 一個로함) 以上三個團體를이름인데 三個會合發生의 經緯는 那邊에在한가

昭和六年五月二十日에 買受者인 三菱及合同과 生産者의代表者인 水産組合間에 締結된 基本契約은 滿五個年間 그効力을 發生하게되엿는바 年年히 이基本契約에 準據하야 生産品의價格을 總督府當局의斡旋下에 協定하게되엿다 그리하야 昭和七年度春季에와서 數次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爲政當局과 生産者와 또는買受者側等이 鰮油肥生産販賣統制協議會를 開催하고 價格協定을 締結하엿스나 生産者와買受者의雙方의利害相反으로 數次의會合도 成果를보지못하다가總督府當局의懇勞斡旋으로그해四月十六日에及其也 아래와가튼 協定이成立되엿든것이다

▲販賣統制協定書
一、硬化油一噸의 原料油罐數는七十二罐으로함
一、原料油七十二罐即 硬化油一噸의原料生産費를 八十圓으로槪算함
一、重要生産業統制法에 依한硬化油一噸의 公設價格에서 運賃其他모든費用을빼고 工場渡價格을 算出하며 右價格에서生産費(八十圓)을빼인것을 當業者의所得으로함
一、右所得의配分은 알에와가튼率에 依함
(가) 生産費를 빼인右所得額을七十二로除하야 油一罐一圓二十錢以下가될때는 그差額(一圓二十錢에對하야)으로折半하야 兩者의負擔으로함
即一圓十錢이되면 그差額十錢을折半하야 兩者各五錢을負擔하게되여 結局業者의 所得은一圓十五錢으로된다
(나) 一圓二十錢 乃至一圓四十錢의 境遇에는 그差額을七對三의 比例로서 按分하야買受者側은 二分을得함

以上의것은 今回油脂의 生産者間에 所得分配率을 決定한것인대 硬化油一噸의 原料鰮油罐數七十二罐으로한다는것은 日本內地의 合同油脂系統의 硬化油工場의生産能率을 標準하고한것이다 現在興南朝窒에서도 自己들의工場에서 實驗한結果 硬化油一噸의原料油罐數는六十八罐이면足하다니 벌서合油의計算보다四罐의實差를發生하고잇다 또한合油에서는 原料七十二罐 八十圓으로一噸의原料生産費를 槪算함에反하야 興南朝窒에서는 原料六十八罐 即硬化油一噸의原料生産費를七十圓으로 하니 生産費로서도十圓의差異를發生하고잇다

이것이 큰問題가 되여 會議席上에서 論爭되엿스나 決局合同油脂의案대로 되고말엇다 이差異가생기는 理由는 只今日本內地에잇는 各硬化油工場이 朝窒보다 設備도不完全하고 機械도古物化되여 生産能率이 低劣하야 生産費가더들게되는까닭이라한다

그러면 웨 生産者들은 利害關係로보아 朝窒에 生産品을 販賣하게 되지안코 合同油脂에서引受하게 되엿는가 여기는 不可避할 두가지 理由가潛在하고잇다 其一은 合油가 입이 制先하야 朝鮮鰮油의 買受權을生産者들이 모르든 사이에 總督府當局과 假契約하고서 日本內地에잇는 各硬化油工場과 原料供給을 約束하엿스며 또한 硬化油는 自己들이 引受하게되는關係

其二는 朝窒은 專門的으로 鰮油全部를 引受할수업는 事情으로 部分的引受로는 販賣統制에 違反됨으로써이다 以上의 두어가지條件으로 專門的油商인 合同油脂에게 一手買受權이 생기게되엿것이다 그러면 이數字的事實을 보다 當局에서 朝窒과 合同油脂와의 原料油罐數와 生産費를 對照하면 硬化油一噸에 對하야 三十圓이란 엄청난 差異를 가지고 잇스니 이것은當然히 鰮油肥製造業者에게 歸來하는 損失임이 너무도 分明한 事實이다 販賣統制란 形態를 버서나 차라리 競爭販賣에 붓친다면 朝窒이 말하는 計算以上의 價格을 밧게될것이다

以上과가튼 有利한條件을 保障하고잇는 合同과 三菱이것으로서도 到底히 滿足을 늣기지 못하엿든것이다 世界的으로 襲來하는 不景氣와 深刻化하여가는 經濟恐慌은 드듸여 朝鮮鰮油肥 生産業者에게 까지 그 影響을 밋치게 되엇다、世界的不況의 深刻化는 購買力을 減退식혀 工場의 機械소래는 나날이 微弱하여지고 失業勞動群의沙汰는 물밀드시늘어만가게되어 合同의大市場도 閑散하게되엇다 그리하야 自己들의 製品인 金肥와硬化油等은 滯貨가 되여 暴落에이르게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昭和六年度協定價格으로는 自己들의算盤이 틀리게되니까 契約條文에依하야商品騰落에따라 改定할수잇다는것으로서 다시協定을提議하려든것이 三個會合의重要骨子이엿든것이다 要컨대 三個會合의 重要精神을 總括的으로 말한다면 買受者들의 苦境을 生産者들에게 轉嫁식히라는 劃策에 不過한것이다 그래서 三個會合의結果 昨先年來의 價格이던 共販組合解消實現을 生産者들은 默認하는한便 過去의買受者이던 三菱、合同은今後委託販賣者로 昭和七年度特別契約을 協定하게되엿다 그런데 웨三菱이나合油가 過去의一手買收權協約을 解除하고 一手委托販賣者란 形式을 取하게되엿는가 그것은 前述한바와如히世界的恐慌에 刻刻으로 深尤하여오는 此際에 그대로 買手權을 保持하고 잇섯다가는 粕油의 時價가從前보다 下落하게되면 自己들은 損失을 보게될 憂慮가 잇섯다 그런데 時價變動에 依하야 價格協定을 다시 할수도잇지마는 이것으로서는 그들에게滿足치못하며 또한 一旦 買賣契約이 協定되면 一個年間은 特別한 境遇가 아니면 契約不履行이 不可能함으로 時時로 下落되고잇는 價格에 打擊을 受할 徵兆가 그들에게 委托이란 安全한 考案을 發見하게 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自己들은時勢如何를 不顧하고 다만 委托販賣만하자는것이다 그리고 過去에 共販組合이 바터오는 粕한쪽에 十五錢과 油一罐에 五錢이란 手數料를 三菱과 合同에서 正常的으로 밧게되엿다 그런데 여게한가지 말하여 들것은 日本內地에잇는 비누工場이나 크림工場이나 硬化油工場이나 重工業工場等 엇더한工商業中樞機關을勿論하고 그大槪가 三菱이나 合同油脂의 系統이事實임것이다 그런데 아모리 그때(昭和七八年度頃)物價가 暴落하엿다하드래도 侈奢品인 化粧品等屬은 그리케 農民이 耕作한 農産物이나 鰮價보다는 下落하지안헛다 그러므로 實狀은 生絲價格이 暴落 되엿스니 鰮價를 싸게한다는 理論은 鰮油價格에는 그대로 適用되지 못할것이다 鰮油로된 化學品도 下落 되지안흔 것은 아니지마는 그때形便이 다르나 生産品처럼 七八割의 暴落은 되지안헛든 것이다 그리고 三菱이나 合同油脂自體에 잇서서는 一手買受者가 되나委托販賣者가 되나 結局맛찬가지다 그것은 委托販賣者라고 하지마는 그들이 生産者에게서 委托바든油粕을 다른會社에 販賣委托을바든것이 아니고 內容上으로는 自己들의 直系工場이나 商業機關에 配給하엿든것이다 그러니까 形式으로 委託販賣라고 하지마는 內容을解剖한다면 過去의一手買受와 꼭마찬가지임을 엇다 이번 委托販賣者가된 三菱과合同油脂의 絶對的 有利條件은 過去보다 鰮油粕의 價格을 自由로히 決定하게되엇고 또 巨額의 手數料를 取得하게되엇 이다 또한 油粕의價格騰落에不拘하고 油肥生産業者와의 是非問題까지 秋毫도업게되엿든것이다 以上의모든것이 三個會合으로서 業産한 三菱及合油의 委托販賣者로 轉化된事實이다

質疑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生이 陶磁器 琺瑯鐵器店을開業코자하오니 釜山이나 群山이나 其外에라도 信用잇는 都賣商三四店을下敎하야주시요 (湖南一讀者)

答 陶磁器都賣店은 京城府鍾路四丁目 馬淵基商店 琺瑯鐵器는 京城府本町二丁目 釘本金物店等이잇습니다

◇

問 日用雜貨商을하랴고하옵는대 直仕入處를下敎하시옵소서 (春川崔若溪)

答 日用雜貨라고하면 엇더한것을 指示하는것인지 모르겟사오나 左記 和洋雜貨都賣商을 紹介합니다 京城府三角町 三永商店

問 小生이 刺繡絲製造를 하울는데 舊式물레로 製造를 하온즉 大端히不便할뿐아니라 時間이 걸려서 할수가 업사오니 小規模로 製絲하는 機械販賣店及 價格을 敎示하시옵소서 (鎭南浦欲知生)

答 刺繡絲製造 機械取扱店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高尾商店이며 價格은 手廻十本合絲하는것은 一臺에 約五十五圓可量이고 二十本可量 合絲할수잇는것은 足踏式、手廻式 共히 一臺에 約八十圓가량입니다

◇

問 本人이 文房具及 化粧品商을 經營코저하오니 京城 大販等地의 有數한 都賣商를 數個所 下敎하여주시옵소서 (龍井村 一讀者)

答 文房具店 京城府本町二丁目 友井商文堂 京城府鍾路二丁目 彰文堂 化粧品 京城府昭格洞 三星堂

◇

問 化學工業中 一般化粧品染料 洗濯 消毒用石鹼外 衛生品(蠅取藥 蠅取紙 鼠取紙)等製造에 對하야 特許權도업고 地方廳許可업시는 製造못하는지요 又上記化學品製造하는 原料商을 京城市內에잇는것을 下敎하야주시기를 바라나이다 (靑月洞生)

答 다른사람의 特許權이나 商標權을 侵害하지안는限 特許權이나 地方廳許可가업서도 無妨합니다 그러고 化粧品의 諸原料都賣商은 京城府蓬萊町一丁目 井上寫商店出張所 京城府岡崎町 朝日石鹼株式會社內 朝鮮脂肪酸組合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等이잇습니다

火賊 林巨正 (83)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四의三二」

원씨는 닷념어집 녀편네 와다닐을 듯고 의외스럽에 놀라서 손에 들엇든 바늘질꺼리를 방빠닥에 떠러트리고 말을못하고안젓는데 아래목 벽에 비스듬이 기대고 안젓든 꺽정이가 문틈의 동자치 얼굴을 바라보며

「왓스면 데리구들어오지 무슨 선통이야」

하고 꾸지람하듯 말하엿다

「여긔 들어와세요」

하고 동자치가 고개짓으로뒤를 가르치니 꺽정이는

「어듸」

하고 몸으며 곳 아프로 나안저서 동자치가 문아페서 비켜서기 방부도록 왈칵 방문을 열어저치엇다 마당안에 들어섯는 녀편네가 꺽정이와 눈이마주치자 아래입살을 깨물고 술적 외면하엿다 녀편네는 늙도 젊도 안코 크도적도 안코 몸집은 똥똥하고 낫짝은 동글엇다 거벽스럽고 싱굴스럽고 억척잇고 끼어이고 틀지고 거방저 보이는녀편네엿다 꺽정이가 눈이 돌어지도록 녀편네를 내다보는 동안에 원씨가 살그머니 꺽정이귀뒤에와서

「내가 건는방으로 다리고들어가서 잘말해보겟니 안방에 가만이 안저기세요」

하고 가만가만 말한뒤에 곳 닐어나 아래간방은 닫치고 옷간지게문을 열고 마루로 나갓다

「좀 올라오시지요」

원씨의 말끄테 그 녀편네는 천천히 대돌우로 올라와서 건느방엽 마루끄테 턱 걸터안젓다

「이방으로 들어오세요」

원씨가 건느방 지게문을 열어노흐니 그녀편네는 고개를한두번 가로흔들고 자긔안진엽을 가르치며

「이리와 좀 안지우」

하고 명령하듯 말하엿다 원씨가 그녀편네더러 올라오너라 방으로 들어오너라 권하는것은 것이 인사썽이지 속마음으로는 올라오지도말고 얼른가기를 바라는 까닭에 방으로 들어오지안는것을 은근히 해롭지안케 생각하야 더 권하지안코 그녀편네 갓가이가서 사이를 두고 쪼구리고 안젓다

이때까지 건는방 안에서 빼끔빼끔 내다보든 상직할미와 아이년들이 모다 나와서 원씨뒤에 둘러서고 기동여페 부터섯든 동자치도 원씨 여프로 갓가이 나섯다

「엇재 오섯습니까」

원씨의말은 끕고 깍듯하고

「엇재 왓느냐 할말이잇서서 왓소」

그녀편네의 말은 거칠고거만하얏다

「네 하실말슴이잇세요 무슨말슴인가요」

「대체 댁에서 우리집하구 무슨원수가잇소」

「그게 무슨말슴이니까 우리가 이웃간이라도 서로 누군지를 몰으고지내는 처지에 무슨은원이 잇겟습니까」

「그런데 엇재 댁에서 우리집 종년을 빼돌렷소」

원씨의 대답이 나오기전에상직할미가

「우리댁에서 종년을 빼돌렷다구 누가 그런 거짓말을합듸까」

하고 나서고 또 동자치가

「봣다는년이 엇더년이요 그년은 눈깔이 둘이아니구 네십듸까」

하고 나서는것을

「잡자코잇지 왜들 나서 짓거려」

원씨가 꾸지저서 제지하얏다

「잡어뎨두 속을리업스니까 잡어뗄생각 마우 그러구 고대 날더러 욕한사람이 잇지안쏘 목소리가 사냅되다그려 그래게 대구 터러운 입정을 놀리는것이 세상천지에 어듸잇는법이요 그런법이 잇스면 좀 압시다」

그녀편네가 손바닥으로 마루짱을 치면서 드러대는 서슬에 잔약한 원씨가 말문이 막히어서 잠잠코잇스니

「할멈입소」

「할말잇거든 하우」

하고 그녀편네는 더욱 긱성을부리엇다 안방에 들어안젓든 꺽정이가 발서부터 나서고시픈 것을 그동안 참기도 만히참엇는데 인제 더참을수업서서 방문을 열어젓드리고

「욕한사람이 내니 나하구 말하자」

하고 대뜸 해라를 내부치엇다